朝鮮日報

新聞價 壹枚四錢△壹個月八拾錢△三個月貳圓三拾錢△六個月四圓五拾錢△壹個年八圓△地方必先金

廣告料 五號活字壹行金壹圓△九字壹行金壹圓五拾錢…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時評

徹底하다는行政整理의솜씨

× 總督府行政整理에 등박에 減省의 厄을 免치 못할 官吏의 頭數가 無慮六千五百餘數에 達하리라 한다 아즉 官制改定案이 具體的으로 發表되지는 못하얏스나 一般官吏의 二萬人中에서 그 二割인 四千人과 一萬九千餘人의 警官中에서 그 一割二三分인 約二千四五百人을 合計하야 以上의 六千四五百人이라는 淘汰의 數字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早晩間 淘汰되고야 말 이 六千四五百人中에서 다시 人種別로 朝鮮人官吏는 얼마이며 日本人官吏는 얼마인지 그 詳細한 內譯은 알 수 업다 所謂 一視同仁의 文化政治라니 外個中에 何厚何薄의 差別感은 업다고 할런지 이지만 表裡가 不同한 거시 비듯 말은 卒可難信

× 또 淘汰의 比率은 一般官吏에 二割로 하고 警官에는 一割二三分에 制限한 本意는 어듸에 잇는지 아즉 當局者의 賢明한 說明이 업스니 알 수 업다 그러나 그 內容을 알 수 업다고만 朝鮮의 警備가 不充分하다는 말인지 萬一 不充分하다면 實的으로라도 淘汰할 餘地가 업슬 것을 當局者의 公公然한 聲明에 依하야도 朝鮮의 治安 때문에 二個師團의 增設外지 力說하지 아니하얏는가 그러고 보면 警察의 淘汰가 녕더 一層 增加할 必要는 잇지 안흘가 뎍으나 徹底한 整理의 솜씨를 무러 보겟다고 夫子自稱하야 매우 意氣가 昂然하든 下岡氏도 此所謂 脫兎의 銳氣에 不過하얏든가 우리는 下岡氏에게 傳授할 整理의 上策이 잇다 몬저 日本人官吏의 加俸을 全廢하고 警官은 簡略히 잡아서 約五割以上은 淘汰할 必要가 잇다 이러케 되면 二千五百萬圓 아니라 그 倍額되는 五千萬圓도 無難히 緊縮의 餘裕가 잇고 이만큼 民利民福이 卽地에 生한다

日本紙幣의畫像

× 日本의 圓價가 暴落하는 바람에 日本의 金價가 二割以上이나 卒地에 暴騰되엿다 아니다 며기에 卒地에 暴騰되얏다 하지마는 日本銀行의 兌換券이 日本 아닌 海外에만 가면 百圓이 八十圓밧게 通用力이 업슨 것은 발서 엣이라 한다 다만 日本의 貨幣制度가 이름만이라도 金貨本位라는 體面을 維持하고자 日本國內의 金값을 不自然하게 制限하고 그 虛名의 代償으로 政府에서 每月 巨額의 補充金을 支出하얏다 한다 그런데 이야 바위도 오래 支持하기가 어려워 從來의 制限政策을 自由放任主義로 밧구기 外에 日本의 金값은 一躍하야 二割以上의 暴騰을 한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貨幣는 名實이 不同한 不換紙幣國으로 化하고 마랏다 이만하면 日本紙幣에 그린 武內大臣의 畫像도 적지 權威가 失墜하얏다고 大阪朝日의 諷刺

◇中國大動亂◇

吳氏上陸拒絶 食料品을得한後他處에

(北京八日發) 芝罘海中에 碇泊中인 吳佩孚氏는 七日午前 艦長二名及兵卒若干名을 上陸케 하야 內地官憲及商務總會와 交涉한 結果 食料飮料水及石炭의 補給을 受하야 가지고 同港으로부터 退去하기로 協議가 成立되얏는데 右食料、炭、水의 積載를 終了하기까지에는 二三日을 要하리라더라

結局은河南으로?

‖(東京電) 吳佩孚氏는 六日芝罘에 上陸코자 하얏스나 嚴司令으로서 하야 拒絶된지라 或은 靑島에 歸還하게 될는지도 모르겟다는데 旣히 山東督辦 高恩洪이 逮捕되야 濟南에 押送되얏다 함으로 靑島上陸도 인제는 不可能케 되얏슴으로 彼는 海州로부터 徐州를 經하야 河南省에 落着하리라 觀測하더라

河南官界 大廓淸斷行

【八日北京發特電】 七日의 命令으로 河南督理 張福來를 免職케 하고 河南督理라는 職을 撤廢하고 새로 胡景翼으로 河南軍務諸職便利宜에 任命하고 또 河南省長 李濟臣을 免職하야 孫岳을 그 後任으로 삼고 目下 上海에 잇는 湖北第五混成旅長 張允明을 松滬護軍使로 任命하엿더라

米陸戰隊 外國租界에駐屯

(芝罘八日發) 米國亞細亞艦隊司令官은 米國驅逐艦으로부터 四分隊 六十名의 陸戰隊를 上陸케 하야 外國租界에 駐屯케 하기로 協議가 成立되얏더라

諸巨頭續續天津에 時局收拾策協議코자

(北京八日發) 馮玉祥氏는 八日午後二時 北京發 天津에 向하얏다 馮氏가 突然히 天津에 赴한 理由는 不日 天津에 到着한 張作霖氏보다 先行하야 段祺瑞氏와 會見하고 直接 意志의 疏通을 圖하고 共히 此後의 方針에 就하야 會同協議코자 함에 잇다 信하며 또 張氏一行은 八日 山海關에 到着하얏다는 情報가 잇슴으로 張氏의 天津着은 遲延하야도 兩三日內를 不出하리라 推察되며 孫逸仙氏도 旣히 上海를 出發하야 北上途中에 잇다 傳한즉 이가 事實이라 하면 時局收拾에 當한 所謂 巨頭會議는 天津에서 案外로 速히 開催되리라고 一般히 豫想되더라

張氏向津과 警戒嚴重

【八日奉天發特電】 旣報와 如히 天津會議에 列席할 張作霖氏는 八日午前四時에 奉天을 出發하얏다 一行은 數個의 客車를 張氏가 搭乘한 車의 前後에 連結하엿는데 錫鉞、追擊砲其他武器를 携帶한 護衛隊도 出發하엿스며 奉天軍總司令部의 全員及在奉日本記者團九名이 搭乘한 列車도 同時出發하엿고 張氏의 列車에는 盧永祥、王永江、總務議揭宇霆、交涉署長 鍾世銘、守使 湯玉麟、町野松井兩顧問外 戰蹟視察키 爲한 在奉日、英、獨의 三總領事、米、佛의 二武官도 잇섯스며 一行은 山海關、秦皇島에 下車하야 戰蹟을 視察하고 또는 各地의 奉天軍을 慰問할 터이라더라

馮玉祥天津着

(北京六日發) 八日午後五時 列車로 馮玉祥은 天津에 着하얏는데 此는 張作霖과 前後하야 入津後 師團內에 集合하야 時局에 關한 巨頭會議를 開催키 爲함이라더라

奉天軍着着南下 勢力圈을擴大코저 前進은卽駐屯地란 略으로

(北京八日發) 奉天의 張作霖軍은 旣히 天津으로부터 津浦線에 依하야 南下하는 中인데 山北、安徽兩省을 橫斷하야 長江流域에 出할는지 又는 山東省을 其勢力下에 納入코자 함인지 目下에는 不明하다 다못 張作霖氏는 前進은 卽駐屯地이라는 彼一流의 政略에서 此機會에 着着 勢力圈을 擴大코저 하야 其軍隊를 前進시킨다더라

重要問題는 獨斷할수업다고 段氏對馮玉祥傳達

(北京八日發) 段祺瑞氏는 陳宦氏를 使者로 馮玉祥氏에게 送하야 憲法國會及中央制度의 諸重要問題에 就하야서는 獨斷으로 할 수 업서 孫文、張作霖氏等과 協議할 要가 잇슨즉 [illegible]余가 入京함을 待하라고 告하얏다 그런데 段氏는 長江一帶에 瀰蔓한 直隸派의 風雲에 甚大한 注意를 拂하는 模樣이더라

善後策에苦心 段祺瑞一派

(天津電) 段祺瑞一派에서는 吳佩孚氏가 他處에 出現될는지는 벌서 問題될 것이 업스나 이보다도 一般善後問題에 關하야 매우 頭痛中에 잇더라

段氏提出의 內閣閣員

(北京八日發) 段祺瑞氏는 巨頭會議에서 王逸統氏內閣案을 提出하리라고 推測되는데 其重要閣員으로 問題되는 人物은 左와 如하다더라

內務總長 田文烈
外務總長 伍朝樞
交通總長 楊鏊錫

政治犯人 官位剝奪取消

(東京電) 當局者‖北京新內閣의 司法總長 孫昌宗은 三日에 就任하얏고 奉天派의 王永江(內務)、王迺斌(農商) 二氏는 아직 就任치 안코 國務院에 辭表를 提出하얏다는 바 更히 六日附大總統令으로써 民國九年七月以後 十三年十一月二日에 至하기까지의 期間에 政治犯人에 對한 官位剝奪의 部를 取消하는 者를 發表하얏더라

今後統一이問題 參謀總長은無意 李烈鈞氏談

(東京電) 目下東京에 滯在中인 李烈鈞氏가 中華大總統令으로 參謀總長에 任命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氏는 말하되 아즉 何等의 通知가 업스나 此에 對한 余의 態度로 參謀總長가튼 것은 眼中에 두지 안는다 只今以後에 中國을 如何히 統一하여 갈가 하는 것이 問題이다 이미 中國輿論이 段祺瑞氏를 推戴하기로 一致한 模樣이라 말하지마는 第一 國民會議가 召集된 뒤에 段氏推戴며 聯省自治라 하는 等 統一方法가튼 것이 決定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其前에 參謀總長에 任命되드라도 卽時에 引受할 수 업다 생각한다고 云云하더라 因하야 同氏는 六日夜에 出發하야 上海로 行하엿더라

新設露領事館 國旗揭揚式擧行

(奉天八日電) 新開設한 奉天露國總領事館은 七日 革命紀念日에 國旗揭揚式을 擧行하얏더라

中國國庫債券 一千二百萬元發行

(北京七日發) 馮玉祥氏가 中央政權을 掌握한 以來 時局이 漸次 安定함에 따라 政府는 益益 財政上의 困難을 感함에 至하얏슴으로 長近閣議에서 北京崇文門의 關稅를 擔保로 一千二百萬元의 國庫債券을 發行하야 이로써 現下 政府의 諸經費에 充當하기로 決定하얏더라

露亞銀行復活 銀行代表의運動

(北京六日發) 露亞銀行代表는 王正廷을 訪問하고 그 復活援助를 要求하얏는데 或은 形式을 變하야 復活할 것이라고 觀測하는 者도 有하더라

露蒙通商 促進第一步 露蒙銀行設立

【九日奉天發特電】 莫斯科駐箚中國公使로부터 奉天當局에 達한 通報에 依하면 露蒙間 莫斯科에 露蒙銀行을 創立하고 哈爾濱、海拉爾、智多及東三省의 各樞要地에는 支店을 設하야 露、中、蒙間의 金融、通商取引을 圓滑케 하자는 議論이 經濟界方面에 主唱되여 近近 此에 具體的 計劃이 發表되리라더라

宣統帝의今後 自由로活動한다

(北京八日發) 今回의 淸室逼放事件에 就하야 宣統帝는 非常히 喜悅하는 바 今後는 自由로 國民이 되야 活動하야 大總統에 되지 內閣組織에 던지에 直接 政治家로서 參與함을 得할지오 從來와 如히 虛名만에 束縛되지 아니하리라더라

以上干涉은안키로 宣統問題와外交團態度 赤化傾向은急轉은아니다

(東京電) 宣統帝問題에 就하야서는 北京政府及馮玉祥等은 同然 危害를 不加하고 皇室의 財寶는 責任으로서 民國이 此를 保護할 터인데 要컨데 今回는 多年의 懸案이 되여 잇섯든 皇室의 優待함에 不過하다고 外交團에 釋明하얏슴으로 外交團은 此以上 干涉은 안키로 決定하얏다 從하야 北京政府가 赤化主義에 急轉하얏다고 思치 안음으로 外交團은 마추어 其成行을 見하기로 決定하얏더라

砲彈爆發 天津停車場에서

(天津八日發) 八時 當地停車場에서 砲彈二百發이 爆發되야 人心이 極度에 動搖되얏더라

奉軍列車火災‖(天津八日發) 八日午前八時 中央停車場의 東便 五百米突의 地點에서 十二輛을 連結한 奉天軍의 軍需列車가 爆彈下落으로 火災를 起하야 午前九時에 十二輛中 五輛은 燃燒되고 其餘는 消火에 努力中이나 全部 燒失되리라는데 暴音은 遠近에 響하야 市民은 開戰이 始한 것으로 誤認하고 驚傷하는 中이더라

冬服多數新製 貧民에게惠給코자

(奉天八日發) 張總司令의 命으로 冬服一萬服을 新製中인데 右는 省內貧民에게 惠給할 것이더라

奉楡鐵道改稱

(奉天八日發) 京奉線의 山海關으로부터 天津까지 奉天의 管理에 도라갓슴으로 奉楡鐵道의 名稱을 廢止하고 京奉鐵道라 改稱하기로 하얏더라

日露交涉 條件漏洩은 日本側으로判明

(北京八日發) 日露交涉의 內容이 北京에서 漏洩되야 全文이 日本에 打電事件에 就하야 外務省으로부터 綱紀廉正의 味로 公使館에 詰問的 電報를 發하얏슴으로 公使館에서는 非常히 驚愕하야 카라한側에서 漏洩된 것이 아닌가 하야 返電을 하얏스나 實際는 日本側委員으로부터 漏洩된 것으로 北京에서도 問題되는 中이다 從來부터 往往 日本委員이 內容을 漏洩하얏섯는데 『카라한』은 絶對로 漏洩치 아니하얏다 하야 日本側에서 出한 것이라고 言明함으로 目下 交涉關係의 委員公使以下 七名中에 何者가 漏洩한 것이라고 大體 判明되얏다더라

獨逸對三國交涉 被占領地選擧運動을

(伯林七日發) 獨逸政府는 英、佛、白三國에 對하야 十二月總選擧에서 占領區域의 選擧運動의 自由를 獲得할 目的으로 外交交涉을 開始하야 右三國으로부터 此를 承認하는 保障을 得하얏더라

米新外交方針大要

(華盛頓七日發) 確聞한 바에 依하면 大統領 쿨리지氏의 外交方針은 大要 如左하더라

一、米國의 對露態度는 不變
二、또스案의 成功에 努力
三、佛蘭西의 債務는 延期
四、經濟的門戶開放政策을 實行
五、휴스氏의 外交方針을 變更

米國選擧 最後結果

(紐育七日發) 쿨리지氏는 確實히 『모스다코타』州에서도 勝利를 占하얏고 選擧投票 最後의 結果는 如左하더라

쿨리지氏 三八二票、데비스氏 一三六票、라포레트氏 一三票

上院各派議員數‖(紐育七日發) 共和黨候補 『블크하드』氏는 確實히 『아이오와』州上院議員에 再選되고 農民勞働黨 『마그나스·존손』兩氏는 『미네소타』州에서 落選되야 上院의 黨派別은 如左하더라

共和黨 五十五名、民主黨 四十名、農民勞働黨 一名

如斯히 政府는 下院同樣 上院에서도 絶對多數를 占케 되얏더라

英帝侍醫또손卿 産兒制限辯護

(倫敦八日發) 英國皇帝陛下의 侍醫 또손卿은 大評判의 公開演說을 試하야 産兒制限說을 辯護하고 基督協會가 此에 反對함을 攻擊하얏더라

싼듸等諸革派首領 『칼캇타』에多數集合 非常命令抗議件審議

(칼캇타五日發) 『싼듸』氏를 爲始하야 多數의 革命派首領等은 印度各地로부터 『칼캇타』에 集合하야 『쎙갈』州에 發한 總督의 非常命令에 依한 逮捕事件의 善後策에 關하야 四日午後 協議會를 祕密에 附하얏다 그런데 同會議는 極祕에 附하는 中이나 아마도 오래동안 繼續될 模樣이며 傳하는 바에 依하면 會議도 政府에서 如何한 論據下에 非常命令을 내렷는가를 審議하는 것으로 何等의 決定案을 確定하야 右命令에 對하야 抗議를 결할 것이라 하며 『싼듸』氏는 『뎅리』로부터 夜中에 『칼캇타』에 歸來하얏는데 氏는 此問題에 關하야 人目을 避하야 大騷動을 식히지 아니하얏더라

데氏再選 씬黨黨首에

(愛蘭六日發) 愛蘭共和黨首領 『데 바레라』氏는 『씬핀』協會黨首에 再選되얏더라

政本合同問題 本黨側態度強硬

(東京電) 政本合同問題에 對하야는 各方面으로부터 協議를 受하야 本黨內有志로부터서도 幾多의 情報를 聽取하얏다 此間의 事情을 考察하야 政黨的 立脚地로부터 嚴正한 批判을 試한 機會를 與하얏는 바 余의 생각으로는 去三日 相談會席上에 言明함과 如히 政友會에서 三派의 提携를 破棄치 아니하는 限에는 問題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昨今 巷間에서 傳함과 如히 政黨의 離合、集散은 單히 感情에 依하야 支配될 것이 아니오 其行動은 恒常 公明正大、政治家로서의 大義名分을 守치 아니하면 不可하다 然而 政友會는 行、財兩政의 整理上으로부터 憲政會와 其主張上에 一、二의 間隔이 잇다 하더라도 아즉 分離될 것은 아니라 我黨은 唯一의 在野黨으로 來할 政局의 推移는 반드시 我黨에 도라올 터인즉 무엇이담당하야 大義名分을 捨할 必要가 잇스리오 云云

農省局課廢合

(東京電) 農商務省局課의 廢合은 左와 如히 決定하얏다

一、官房 統計課는 現在대로 할 但 課長은 文書課長의 當然兼任으로 改함
二、農務局 小作課를 農政課로 移管하고 農務課를 耕務課로 改함
三、商務局 商品陳列館、貿易通報課、市場課、商事課를 廢하고 貿易課、勞務課를 新設하며 管理課를 取引課로 改함
四、工務局 能率課를 工業課에 移管함
五、山林局 地方課의 林産課를 合하야 公私林課로 改함
六、鑛山局 製鐵課를 鑛政課에 移管함
七、水産局 北洋課를 漁政課에 移管함
八、畜産局 家畜衛生課를 畜政課에 移管함
九、食糧局 局을 農務局에 移管함 開墾課、耕地整理課를 合하야 米穀課로 改함

國有財産法의 適用範圍 各地에도及할듯

(東京電) 國有財産法의 適用範圍를 擴張하야 此를 各地의 國有財産에 外지 及케 한다는 問題는 多年의 懸案이엿든 바 整理도 一段落을 告하얏슴으로 國有財産整理局에서는 諸準備를 頓하야 來議會의 開會와 共히 各地代表의 集合을 待하야 所要의 交涉에 着手하야 解決을 促進키로 決하얏는데 各地의 國有財産에 對하야 日本과 全然 同一한 國有財産法을 適用함에 就하야는 各地當局의 強硬한 反對가 有함으로 結局 某程度外지의 例外를 認할 것은 未知하는 바 卽 各地當局의 要求하는 點은

一、少하야도 各地所有의 國有財産의 處分權은 各地當局에 一任할 것
二、各地所有財産의 總轄權을 某程度外지 各地當局에 移讓할 것
三、各地所有財産의 貸付料及賣却代金等은 此를 各地의 收入으로 할 것

等이나 大藏當局은 某程度外지 各地의 希望을 容하야 各地에도 此를 適用을 圖할 模樣이라더라

旱害救濟 資金融通決定

(東京電) 本年稻作移植期의 給水缺乏에 依한 大旱害로 各地의 農家가 苦境에 處함에 對하야 大藏省은 此를 救濟코자 預金部로부터

日本 一千萬圓
朝鮮 五百萬圓

을 融通키로 決定하얏더라

對伯抗議決定 移民問題로

(東京電) 南米伯剌西爾의 排日氣分은 매우 濃厚하야진지라 目下 議會에서 移民制定法案을 審議中인바 右에 對하야 日本外務省은 抗議書를 提出하기로 決하얏더라

東拓外資融入 來議會에提出?

(東京電) 東拓會社는 曩히 政府에 東拓債券八千萬圓을 限度로 政府保證을 得하야 外資를 輸入코자 希望하얏스나 大藏省은 朝鮮産米增産計劃實行으로 且將來의 外米輸入防止의 根本的 對策과 目前 外資金을 補充하는 應急的 經營對策의 意味로 異論이 無하얏스나 前宮尾總裁에 對한 現政府의 信認絶無로 因하야 該社債法案의 來議會提出은 不確定케 되얏섯스나 八日 久保田政周氏가 東拓總裁에 就任된 結果 該保證案은 來議會에 提出될 것이 確實케 되야 大藏省은 該保證案提出에 關한 理由其他 調査에 着手하얏더라

低資融通意嚮‖(東京電) 東拓이 政府로부터 融通을 受하기로 決定된 低利資金 二千萬圓 勘定은 財政上 事情으로 其中 一千二百萬圓을 融通하얏슴이오 殘額 八百萬圓은 그대로 잇스나 政府는 總裁更迭後에 融通을 할 意嚮이 有한 模樣임으로 新總裁의 就任과 共히 同問題도 漸次 進行되리라더라

新東拓總裁 事務引繼

(東京電) 八日 東拓總裁에 新任된 久保田政周氏는 八日正午에 直히 出社하야 宮尾總裁와의 間에 事務引繼가 잇섯더라

理事級異動萬無‖(東京電) 東拓總裁更迭의 結果 宮尾總裁의 手에 入社한 鈴木、沼田의 兩理事는 宮尾氏와 進退를 同히 하리라고 傳하얏든 바 同氏의 總裁와 理事의 關係는 實質上 何等의 異動이 無할 것이 아닌으로 當分은 理事의 異動이 無할 것이오 又 久保田總裁는 其閱歷과 如히 滿鮮의 經濟事情에 通하고 人格高潔한 人임으로 氏의 關係는 良好하리라더라

淘汰人選의標準 人物을本位로 大小官員更迭未免

總督府의 行政整理에 伴하는 人員淘汰는 本月中에 人選을 了하고 來月一日부터 十五日外지 辭令을 交付할과 同時에 發表할 事로 內定된 것은 旣報와 如하거니와 淘汰人選의 標準은 人格才幹手腕의 優劣을 第一義에 置하야 假令 學歷은 良好하고 年齡은 少하드라도 上述한 要件에 不足한 者는 此를 罷免할 것이오 此와 反對로 學歷이 低하고 年齡이 長하드라도 右條件을 具備한 者는 人材며 識見이 相當한 者로서 안흘 것이오 又 此際에 比較的 厚遇될 만큼 一時賜金을 支給하고 退職을 希望하는 者에게 對하야는 可及的 本人의 希望에 副케 할 것임으로부터 近間 所屬各官署長으로부터 部下中 此等關係者의 內意를 聽取하야 參考資料에 供할 터이라 하며 又 人物本位에 依하야 整理한 結果 假令 部局課의 廢合으로 椅子의 喪失한 者가 잇드라도 其職에 在하든 者가 必히 罷免되는 것이 안이라 他의 適當椅子에 就케 할 것은 當然의 歸結인 바 今回의 行政整理로 因하야 多數의 罷免者를 見하고 且 總督府地方官署에 亘하야 大小官員에 大更迭을 見함에 至하리라더라

港灣河川及道路工事 近近起工되리라고

下岡總監이 語한 港灣、河川、道路工事에 關하야 土木部에서는 左와 如히 豫算을 要求하얏는데 總監의 努力에 依하야 全部가 政府의 諒解를 得케 되얏스며 其事業은 十三年度부터 十四年度에 亘하야 遂行할 터인데 就中 河川、道路의 兩工事를 爲主하야 旱害救濟策으로 行하는 것인 故로 起工時期는 될 수 잇는 대로 速히 할 것이라 한다

一、港灣改修 八十萬圓
內譯 釜山港 四十五萬圓 元山港 十五萬圓 淸津港 十五萬圓 城津港 十萬圓
一、河川修築 百二十萬圓
內譯 萬頃江 七十萬圓 載寧江 五十萬圓
一、道路 五十五萬圓
內譯 天安大邱間一等道路 萬圓 忠州盈德間 同 五萬圓 京城木浦間 同 十四萬圓 此外에 忠淸南北道、慶尙北道、全羅南北道의 五道에 對하야 一二等國有道路委任工事費 七十八萬圓이 잇다

墺內閣總辭職

(維也納八日發) 墺太利 『사이펠』內閣은 鐵道總同盟罷業의 防止에 失敗하야 八日 總辭職을 하얏다더라

聯國官吏侮辱

(伯林六日發) 『잉골스타트』市에서 激昂한 市民群衆은 兵器廠砲兵工廠巡視中의 軍事監理委員의 自働車를 襲擊하고 二名의 聯合國官吏를 侮辱하얏는데 『싸싸리아』政府는 右事件에 關한 調査를 命하고 且 同地警官의 無秩序한 것을 攻擊하엿더라

黃海線自働車聯絡

黃海線 未力驛으로부터 新院을 經하야 海州에 至하는 鐵道는 아직 開業치 못하엿스나 新院外지는 來春은 開業할 터이라 하며 目下는 旅客의 其他에 不便을 感함이 不尠하더니 在海州 海龍自動車部는 未力海州間의 自動車의 乘車券別買及汽車와 自動車의 黃海線各驛相互間의 聯絡을 計劃하야 朝鐵과 協定을 하엿슴으로 來十二月一日부터 前記聯絡運送을 實施할 터이라더라

一週一評

評壇餘墨 十一月九日 民世

問題의東拓社

東拓會社의 由來 및 그 內容에 關하야는 吾人은 다시 張皇하게 말할 必要가 업다 그러나 近者에 朝鮮各地에서의 東拓의 [illegible]의 소리가 … 리를 낫을고 들어다치는 것을 보면 前韓政府의 出資에 因한 宮土驛屯의 土地의 膏腹地를 그의 巨口의 속에 너흔 東拓이 이제 荷杖의 怪態로써 얼마큼이나 朝鮮人에게 掠奪과 및 驕務의 날카로운 鋒鋩을 들어대일 것을 알 것이다 이제 有吉氏를 代하야 朝鮮政務總監의 地位를 차지한다 하든 舊原通敬氏가 一時 宮尾氏의 뒤를 이어 東拓總裁의 椅子에 안게 된다든 것은 創스런운 鋪議와 함씌 이 東拓에 일마음이나 그 形影相隨하는 『特殊』의 使命을 띄고 잇는 것을 다시 한번 妙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屋건들이 儼然히 存在한 동안 더衣의 人은 되어 몸을 두뜰 영이 업을 것이다 그러나 新任하는 久保田氏는 과연 何人?

政本合同問題

往年에 日本 中岡艮一이라 하는 者가 東京驛에서 原敬氏를 狙擊致死케 하매 因하야 政友會는 改造、非改造의 分爭이 나고 再轉하야 그것이 政友會의 分裂을 보게 되고 그리하야 多年 日本政界의 橫暴者노릇을 하든 政友會는 이미 昔日의 그것이 아니게 되엿다 所謂 護憲三派를 聯合하야 加藤氏가 內閣首班의 榮冠을 쓰게 된 것은 全혀 中間의 그늘이라 할 것이다 이제 政權을 떠난 惡運의 … 楚老의 눈물을 흘리는 本黨의 人物들과 및 政友會 위인은 … 合同을 주장한다 하는 北京근처의 軍閥들 그들로서 그도 或 … 을 것이다 農務省의 大臣椅子를 더 엇는 心事는 何如? 通常하면 加藤氏도 허릅일 것이다

米共和黨勝利

이러한 말은 또다시 樂論하도록 우리의 生活에 緊切한 關係도 업지마는 痛快? 果斷性?이 잇다는 『갈빈·쿨리지』氏와 및 陸軍少將 賠償問題調査委員長의 職權을 가진 『시카고』의 銀行家、그리고 財閥의 有力者인 『찰스·도쓰』氏

英保守黨內閣

五百五十萬의 得票로써 同氏의 信任이 前보다도 놉하얏다는 勞働黨內閣의 首班 『맥도날드』氏는 歡呼하는 群衆의 送迎裡에 忽忽히 印綬를 들리고 『쏠드윈』氏가 例에 依하야 保守黨內閣을 組織하엿다 그러나 頑強派의 巨頭 『카손』氏가 樞密院議長의 閑職으로 上院에 들어가고 前聯立內閣의 閣員으로 折衷派인 『오스틴 쳄벌렌』、『쎄큰헷드』氏等이 外相과 印度大臣의 要職에 就하엿스며 『로이드、조지』의 한팔이라 하든 『윈스톤、쳐칠』氏가 大藏卿이란 것은 우선 그 陣容버렴이 緩和的인 것을 알 것이다 『암소를 살려누고 젓만 짜먹』기에 이골이 난 英國民은 과연 낙의 追隨를 허락지 아는 特長이 잇다 勞働黨內閣의 出現으로 『英國의 墮落을』 부르짓든 保守的 國民들이 『中國에서의 놀날만한 時局의 推移는 英國의 가장 聽明한 政策을 必要가 잇다』고까지 서든다 어데나 모다 反動의 氣分이 濃厚한다

改造聲中의中國

吳佩孚의 芝罘上陸에는 米艦隊가 擁護를 하엿다 하거니와 眞耶아 假耶아? 山東一角은 어찌 久居할 地이랴 吾人은 아즉 詳報는 모르거니와 오날은 고만 長廣舌을 保留하고 方今 拘禁中에 잇는 曹總統이 馮玉祥에게 보낸 편지를 翻譯하야 써 諸位의 一覽에 供할가

『貴下(馮)는 回軍하야 停戰을 주장하니 讚嘆할 만하도다 余(曹)는 軍務에 從事한지 三十年、各地方을 督한지 十年、일즉 保定에 물러가 餘生을 즐기려 하엿더니 昨年 黎元洪氏 退位하매 總統되라는 勸誘를 바덧다 吳佩孚氏는 이에 反對하되 貴下는 王承斌氏等과 함의 余에게 切勸하여서 드듸여 就任케 하엿다 今秋 盧永祥氏가 起兵함에 貴下는 盧氏等을 反逆者라 하야 直時에 討伐키를 主張함으로 余는 決然히 討伐令을 내렷고 그後에 곳 張作霖氏가 일어낫다는 報를 接하매 貴下는 곳 討滅을 勸함으로 吳氏와 合意하야 余는 奉天討伐令을 내렷엇다 余는 當初부터 和平主義이엇슨즉 이제 貴下의 停戰主張을 들으니 勿論 異議가 업는 바이다 余는 昨年 貴下에게 불리여 入京하엿더니 이제 또 貴下의 보냄으로 出京하려 하도다 貴意如何』

드른則 馮玉祥은 張에 代하여 東三省巡閱使되기를 求하엿스나 그를 快諾지 안함으로 그는 五百萬의 黃金으로써 에오라지 本領을 삼고써 山海關의 勝利의 戰局을 破滅케 하엿다 하니 吳佩孚는 도한 太甚하도다

八面鋒

○朝鮮의 思想團體는 돈이 업서서 조유하여젓다고 某警察當局이 말한다나 떠돌다가도、돈만 보면 주저안는 것과는 性質이 달으다

○吳佩孚가 海上에 떠서 捲土重來를 劃策하는 동안에 馮玉祥은、紫禁을 눌너 놧고、宣統帝를 驅逐하엿다、이와 가티 하야 中國의 天地는、平定이 無日

○近來 人身賣買가、到處에 流行한다、인제 팔니고 남은 사람은 엇지하랴는지

◇各地止價◇ 大阪 三八、二八錢 熊本 高岡 三七、七〇 東京 仁川 三十九圓七十五錢 三十三圓十三錢、四錢

▲米穀及鹽類(十一月八日)

今日 晴 一時

文官 試驗問題集 送共七十五錢 代引八十五錢
初等普通校 中等、商業 補習算術 送共八十六錢 代引一圓
各等學校 入學準備 入學試驗問題答案 送共九十六錢 代引一圓十錢
獨學自解 日語講義錄 送共六十七錢 代引八十錢
內鮮對照 書簡文 書式語譯 送共七十四錢 代引八十五錢
朝鮮 官公署所在地 各銀行會社所在所名 送共三圓八錢 代引三圓廿錢
朝鮮古錢價格圖鑑 送共卅二錢 代引卅五錢
京城本町 ◎ 振替二二二三 우쓰보야書館

高陽郡龍江面[illegible]里 裴炳璿

平壤鍾路 洋服帽子 各種衣類 商東西商會

地方副業好適 詳細社則無代進呈 大阪南區天王寺驛前 電話南七九七三番 三友社 男女募集 自宅簡易 執筆遠近 不問收入 確實爲備

平壤西門通 活版石版 和洋紙類 洋式帳簿 意匠圖案 美術印刷 普成社印刷所 電話一〇五六番 振替一三七二九番

平壤鍾路 帽章 メタル專門 三角商店

大京城生活記 (六)

입에세는나무가三億本 방에때는나무가四百萬圓

간장이일만여석맥주가이만여상자 놀라울만한우리집안의일년간살림

막걸리、약주、소주등 조선술의 소비되는 분량은 그러하거니와 서양사람 잘먹는 맥주(麥酒)는 경성안에서 일년동안 얼마나소비되는가 작년에조사한바에 의하건대 맥주이만삼천오백상자가소비되얏는데 그갑이 사십이만삼천원이라하며 이 맥주가만히소비되는곳은 대개 료리집과 음식뎜이라는데 외국 도시에비교하여서는 오히려 얼마먹지못하는세음이라한다

× ×

먹고마시는이약이는 그만 하여두고 이제마즈막으로 치고싸는이약이나 좀 하고 음식 타령을마치자

× ×

치는이약이는 음식에 쌉쌀한간장을 치는이약이오 싸는이약이는 식후에당배 싸는이약이라 첫간장이 경성안에서 얼마나소비되나하고보니 일년동안에 일만일천 삼백오십석이 소비되는데 그갑이 칠십만이천삼백원이라한다 그리고 경성안에서는 일본간장보다 조선간장이 만히소비되는데 이는물론 경성의 일본인 조선인의 인구비례로 보아 당연한결과일것이다 이제 그소비되는분량과 금액을 조선간장 일본간장구별로소개하건대

品名	消費量	消費額
朝鮮品醬油	一〇、五〇〇石	五六〇、〇〇〇圓
日本品醬油	八五〇石	一四二、三〇〇圓

이라한다

× ×

다음에 대경성안 이십팔만여인구의 코구녁으로 연긔가되여다러나는권연(卷煙)은얼마나되는가 개수로누가그러케 자세히세여보앗는지는 알수업스나 하여간대략삼십억(億)삼천이백삼십팔만여개가 되리라한다(이삼십억삼천이백삼십팔만여개의가격은 조사상곤난으로 자세한통계가업스나 하여간삼십억삼천이백여만개의 권연이 일년동안에재가되는것은사실일것이다

× ×

어제오늘로 날이 벗석치워지매 불뚝뚝하게 때이고 아래묵에드러누어잇고십흔생각이가절한중 요새가티 치운때를 당하면남생각다음으로나는생각은화로생각이오불생각이오때일나무생각이라 생각난김이니 어듸경성안에서 일년동안에나무는얼마나때이나 얼마만한돈이 일년동안에글둑연긔로 살어지나하고 따저보니 대경성큰살림에 때일나무(薪材)석탄(石炭)숫(木炭)등속갑으로 일년에 사백사십만삼천원돈이소비가된다 그소비되는분량을보면 숫보다도 석탄보다도 때이는나무(薪)가 가장만히소비되여 그갑이 일백칠십여만원거의이백만원이갓가웁다이제그자세한 소비분량과 소비가격을보니

品名		消費量	消費額
薪材		一八、九三〇、〇〇〇貫	一、七四五、〇〇〇圓
石炭	朝鮮炭	三、〇〇〇、〇〇〇貫	[illegible]
	日本炭	[illegible]	[illegible]
	撫順炭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木炭		[illegible]	[illegible]

이라 근년에는 조선사람가뎡에서도 아궁지를 석탄불피우기조토록 장치를하여노코 석탄들을피우기시작하야 해마다 석탄의수요(需要)가더만허간다는데 무순탄(撫順炭)이데일만히소비된다한다

× ×

시내의 순전히나무만 파는장이두군데가잇는데 참고로 그두군대 나무장에서 일년동안관돈을알어보니

▲安國洞公設柴炭市場에서 二萬九千八百六十四圓이오▲敦義洞公設柴炭市場에서 四萬二千二百七十五圓으로▲總計七萬二千一百三十九圓 (大正十二年度調査)

이라한다

去益無道한東拓

사인면작인에게대하야는 소작료는못감한다고선언

황해도봉산사인면(鳳山舍人面) 동척소작인수백명은금년에수재한재 충재를겨고 소출도변변치못한데 소작료는 소출이상으로가져오라함으로 너무 억울하야 동척지뎜에 이러한 사실을들어 공평한조처를애원하얏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동척에서는 하등조처가업슴으로억울한소작인들이지난륙일부터동척지뎜부근뷔인터에서 밥도못먹고 근근히 죽을사먹으면서 비바람을무릅쓰고행여나 공평한 소작료를다시조정하여줄가하고 주야를불구하고 수삼일을 애원하여오는중 데팔일에는 동척에서 사인면농감(農監)이 인력거를타고 주위에 잇는 소작인들을 피하야동척지뎜에들어와서 무슨비밀의론을한후 동척에서 사인면소작인대표를 불러 소작인들은 아지못하고 행여나 무슨조흔소식이 잇는가하고 몰려갓더니 소작료는 이미뎡한것이니 추호도 감할수업다고하얏슴으로 소작인들은 소출을다갓다바처도 부족하겟스니 엇지하나하고 탄식하얏스나 지뎜장이 지금업스니 지뎜장이온후에 결뎡하자고하얏슴으로 수백명소작인은 그날밤도그곳에서지나기로하얏다더라

九條의不公平 작인의진정서

전항과가티 동척에서는 조금도 그억울한사정을 생각하야주지 아니함으로 수백명소작인은 아홉가지불공평한뎜을들어동척경성지뎜과 군당국에 공평히처리하여달라는진정서를데출하얏다더라(사리원)

郡守、署長도無信

재녕북률면소작분요사건 군수서장도어물어물하여

황해도재녕북률면(載寧北栗面) 동척소작인과 동척사리원 지뎜사이에 부정당한 소작료문데로 분쟁이나서 근일쯤이나 천여명의 소작인은 주야로한우풍상을 불고하며 정당한 책임을구하기위하야 혹은동척지뎜에 혹은군당국과 총독부에까지 그억울한사정을 애원진정하엿다함은 이미루차보도하얏거니와 지난팔일에는 재녕군수와 서장이 당디에나와서 동척과협의한결과에 상당한조정을하여주마고 모호한 말로 오백명작인들을각각도라가게하엿슴으로 작인들은 이제는정당한 해결이잇스리라하고곳도라갓더니 소작료는조금도 감하지아니하고 도지사가 신천(信川)에와 잇스니 도지사와 협의한후십일에결정을하여주마고 모호한 말을하고 군수서장들은 도라갓슴으로 소작인들은 이것이무슨말이냐고 더욱분개하야 야단이라더라(사리원)

信川에도不納同盟

가산면소작인의또애원

황해도(黃海道)신천군(信川郡) 가산면(加山面)에는동척회사토디가만흔바 금년에는 수해한재와십지어 충재박재등을 고루당한곳인데동양척식회사에서는수확이상의 도조를 청구하야작인들의 원망이흡흔바 그회사의태도가너무강경함으로가산면작인일동은 도조불납 동맹을하는동시에 가산면 백석리창고잇는곳에 수백명농민이 몰려가서삼사일을 로숙하며 동척회사출장원들을면회하고저하엿스나 출장원들은 피하기만하고 맛나지아니함으로 지난륙일에는 형세가매우위험하야 재녕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경관이다수히현장에 출장하야 농민들에게폭행을 하지 말라고 하엿다하며농민들은 어느때까지라도 그네들의 요구를 듯지아니하면 도라가지 아니할 터이라더라(재녕)

木炭商會火災

두집을태이여

지난사일오후구시경에강계군동부동(江界郡東部洞) 구십팔번디목탄상회(木炭商會) 박종협(朴鍾協)의집에서 불이나서맹렬한 불길은 마츰바람을맛나 소박며 이웃집 반부가전소되고 이웃집리경규(李堈奎)집부억한간을전소하고 동렬한시반경에야 겨우진화되엿는데 숫뎜이에당긴 불은그 이튿날까지 계속하야 탓다하며 발화원인은 자세히 알수가업스며 손해액은방금 됴사중이라더라(강계)

兩夜饑饉音樂

왜관에서대성황

왜관(倭舘)에서긔근구제음악강연회(饑饉救濟音樂講演會)를개최하다가 그곳경찰의 금지를 당한사실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 그후주최측인 왜관청년회에서는 여러번 교섭한결과 강연은 될수업슴으로 부득이 음악회만 열기로 하야 지난칠일 팔일의 이틀동안밤마다 개최하고 대구에서도 일류음악가가 참석하야비상한 성황을 이루엇는바 긔근동포를생각하는 동정이 만히모엿다더라(왜관)

『레ー닌』未亡人 生産增額을力說

로농국칠주년긔념일에

로농혁명데칠주년혁명제(勞農革命第七周年祭)는 칠일에성대하게 거행되엿는데 『레ー닌』미망인은 로농정부에 추실키를행세한 군사의 열병식(閱兵式)을 친히통감하엿스며 수십만의 로동자는 크고적은 붉은긔를가지고 행렬하엿는데『레ー닌』미망인은 특별히 산업의 생산증액(生産增額)을력설(力說)하엿다더라(아라사막사과뎐보)

岩泰小作爭議 和解는虛說

논에나락도아즉베이지안코 문디주는더욱소작인을학대

◇大邱에서 岩泰小作會幹部談

오래동안싸홈에싸홈을거듭하야 온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는일시에 화해되얏다는 말을들하얏스나 이것은 무근한풍셜에 지나지못하고 실상은 갈사록분쟁이더하야 도뎌히 타협될여망이 업서젓다는데 이사건으로 대구복심법원에공소한 소작인들을 위하야일부러대구에와서 두류하고 잇는박복영(朴福永)씨는 그사실 내용에 대하야 아래와가티말하얏다

디주와소작인간에 쌍방이서로 고소한것을 취하한것으로 마치모든일이 해결된듯이 전하엿스나이는서로고소한것만취하하얏슬뿐이요 분쟁은그대로 계속하여갑니다 디주문재철(地主文在喆)은암태도의 삼분지일이상의 토디를가지고 매년일천백석이상의 소작료를 착취하는터인데

금년에는 소작쟁의로 흉각정을 품고어더까지 소작인을 곤난하게하랴고 지금까지 논에나락을 베이지 못하도록하야 나락이 만히 떠러젓스나 너무감정에몰리여 앗가운것도 생각지아니하고 갈사록소작인을 학대하는모양인바 소작인들도 굴하지아니하고 일양반항하며 중대한생명관계에 그대로 참을수가 업슴으로 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가일어나서 엇재든나락을 비여드릴작정이라하며 문재철은 우리소작인회에 대항할계획으로 자긔의 친척관계자몃사람을 모아소작상조회(小作相助會)라는

반동단톄(反動團體)를 조직하고 또한 문재철이가 경영하는 남일운수회사(南一運輸會社)는 이전부터암태청년회(岩泰靑年會)와련합하야 교육협회(敎育協會)라는 헛이름만가진단톄를 만드러 다시그리로관계를 맺는동시에소작인회와 청년회는 가튼편이라고 여러방면으로 추궁하는문재철의 횡포한태도에는 누구던지 격분을품고 죽을때까지싸워볼 결심인데 의외로 무사히화해하얏다는 풍설이 전파되는것은 조치못한 일로생각합니다(대구)

群山紀念도禁止

치안방해라고

전라북도군산(全北群山)에잇는 각단톄에서는 련합으로 지난칠일로서아 혁명긔렴강연을 개최하고자 하얏스나 군산경찰서에서는 치안방해라는 구실로 금지를 식히어서마츰내개최하지못하얏다더라(군산)

昨曉鐘路署의火災

이웃한금은공장에서불이나 공장팔간과류치장일부소실 留置人處置로大騷動

바로어제새벽일곱칠분쯤 시내인사동(仁寺洞) 일백일번디 종로경찰서와련접한화신상회(和信商會) 금은세공공장에서 홀연히 불이나서화광이 종로일대에 밝아지매 불이를발견한 각처소방대는 즉시진화하기에 로력하얏스나 발서여덜간되는 기와집에는 불길이 전부만연되얏슴으로 용히진화될가망이업섯스며 불길은 그대로 종로경찰서 류치장에까지 크게붓기 시작함에 종로서에서는 류치하얏든 사람들을 전부본서경무계(警務係)로 피란케하는등일대소동을이르키다가 겨우한시사십분에 진화되얏는데 화신상회공장은 전소되야손해가 일천오백원에 달하얏스며 종로서류치장은 벽만두간반가량이나 탓다는데 원인은 밤여덜시까지 일을하든 직공들이도라갈때에 숫불을 잘쓰지 못하고도라간바 그것이 연소된것이라더라

禁食으로義捐

안악읍예수교회의미거 이틀동안한제식을굶머 金品百餘圓을收合

안악읍(安岳邑)예수교회에서는 긔근으로 우는동포들을 위하야 지난달 이십육일과 이달초이일의두일요일에 새벽 다섯시반부터여섯시반까지 새벽긔도회(祈禱會)를열엇는데 교인전부가 긔근당한동포의고통을 가티맛보기 위하야조반한끼식을금식(禁食)하엿스며 또의연금을모집한바

◇십월이십륙일 일요일에는
현금 四十五圓二十二錢
白米 三斗 小米 五斗 代十一圓五十五錢
◇십일월이일 일요일에는
현금 三十七圓七十一錢
白米 一斗六升 小米 三斗九升 代六圓八十錢
合計 一百一圓二十八錢

이와가티 일백일원이 넘는 금을 긔근구제회로 보내게 하엿스며 그교회에서 하는일에 찬동하야 안악읍내에사는 모씨는 비록교인이아니나 현금 이십원을 그 교회로 보낸일이잇스며 『강마름』이란부인은 무의무가하야포목행상(布木行商)을하는터인데 현금오원을 내엇스며 엇던가뎡에서는 어린아해들까지 금식을 식히엇슴으로 어린아이들도 긔근당한동포의고통을 깁히생각하게되엿다더라(안악)

◆…화신상회공장의불단자최…◆

三角關係의犧牲인가

팔일평양부근의미인털도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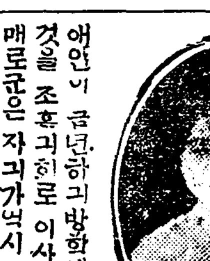
지난팔일하오두시경에 평양부외 창광산(平壤府蒼光山)비탈솔밧아래에서 하늘을우럴어 자긔의긔구한 운명을 하소연하며 미여지는가슴에 넘치흐르는 눈물을 억제키어려워 흑흑늣기든 절믄녀자는 무슨일으로인지 아츰부터오후다섯시삼십오분에

평양역을 떠나 봉텬으로 행하는급행렬차를보고뛰어들어 무참히 량다리를 갈리워곳 자혜의원으로 드러가 수술을하얏스나 이날오후령시이십분에 그만청춘의꼿다운면압길을남겨두고 그우에 또자나께나잠시도이즐수업서하든애인을 멀리외로 이역에 혼자두고 영원한잠의 세상에 도라가버렷다 이녀자는 평안북도뎡주군마산면신오동(定州郡馬山面新五洞)에 원적을둔 백락조(白樂鳥)라는금년

스물한살 된녀자로자긔와 일생을가티하자 약속한애인로모(盧某)라는청년이가슴에큰 뜻을품고 동경으로 류학을가매 자긔도 남편이 공부할동안에 학문을배워 조흔짝이되야원만한가뎡을 일우고저 가세의곤난함도 도라보지안코 남의될 애인이 금년하긔방학에 도라온것을 조흔긔회로 이사정을발하매로군은 자긔의 가장사랑하는사람의 간구하는 것임으로 쾌히승락하고 구월에학교에 다시가는길에 평양까지 다리고와

성서학원에입학하게하엿다 그러고자긔는 련련한애정을이기지못하면서도 동경에 건너가자긔와 애인의학자를 엇기 위하야공부하는 여가에 세강약방(笹岡藥房)에서틈틈히품을 파라매삭원식의 돈을 보내기로하엿다 그러나공부하는 여가에버는돈이라 이달에 부낼돈이 느러젓슴으로백락조는아츰저녁으로 다다쳐오는 곤난에자긔의 애인으로부터 오는학비만 고대하다가 락망하야 눈물을흘니며 또한자긔의 애인이 학비를어드려애쓰는양을 생각하고는 그만 업드러저 운적도 만혓다이러하든중에 학교도 자연뎟칠결석하고

실음업시 울기만하다가 팔일아츰에주인집으로부터몰래 나와이와가티렬도자살을하엿다하며그는 유서두장을 남기엇는데그유서를보면오죽 돈이 업서서 죽은것이 분명하나다시한가지 중대한원인은 평양에 와잇는동안에 다른남학생과의사이에 남모를관계를 맺고지나게 된것을 후회하고 동경에잇는로모를대할 면목이업게되얏슴을 비관하야자살한것이라더라 (사진은백락조=평양)



運動競技

朝鮮記錄을突破한 培材金、崔兩君 優勝은養正軍

─陸上競技經過─

既報=延專主催의中等學校陸上競技大會의午後의競技經過는아래와가튼데昨年大會보다技量의進步가잇스나별로히記錄突破로볼만한것은極히드므르더다만培材崔戴陰君의圓盤投(28米59)와同校金守基君의走高跳(1米594)가朝鮮記錄을突破하얏슬뿐이엇다그리고順序대로競技를마치고各學校別로난혼得點報告에依하야一等養正▲二等培材▲三等松高▲四等徽文▲五等高豫等順次로優勝컵及旗와其他賞品을授與하고盛況裡에閉會되얏다

트라크部

八百米豫選 A組一着梁承環(養) 二着李仁燮(養)▲B組一着金顯曜(培)2分31秒 二着李圭弘(青)2分32秒4

一千五百米決勝 一着張寬植(培)5分13秒 二着洪承環(養)5分14秒3 三着崔慶洛(養)

二百米決勝 一着李鍾元(養)26秒2 二着朴駿榮(養)26秒4 三着金貞植(徽)

八哩마라손 一着吳秉格(養)43分4秒2 二着崔慶洛(養)43分6秒1 三着趙東琿(培)45分 四着金興彬(松)46分2秒 次着白聖珠(培)

四百米決勝 一着金長律(松)1分2秒1 二着李榮徹(培)1分3秒1 三着吳秉殷(徽)

八百米리레 決勝 一着養正1分50秒4 二着徽文1分52秒4 三着松都

一百米決勝 一着李鍾元(養)12秒 二着金允基(松)12秒1 三着朴駿榮(養)

八百米決勝 一着梁承環(養)2分31秒 二着朴孝達(養)3分24秒 三着韓應七(豫)

一千六百米決勝 一着培材3分20秒 二着養正3分20秒4 三着松高

필드部

圓盤投決勝 一等崔戴陰(培)28米59記錄突破 二等劉約翰(松)28米33 三等咸龍華(培)28米23

投槍決勝 一等李鍾元(養)40米78 二等咸龍華(培)37米10 三等俞俊萬(養)35米03

走高跳決勝 一等金守基(培)1米594記錄突破 二等金東愚(養)1米535 三等咸龍華(培)1米444

第二回中等學校 陸上競技得點

參加人	養 28	培 20	松 28	徽 19	豫 7
100米	4	0	2	0	0
200米	5	0	0	1	0
400米	0	2	3	1	0
800米	5	0	0	0	1
1500米	3	3	0	0	0
마라손	12	3	1	0	0
800米리레	5	0	2	3	0
1600米리레	3	5	2	0	0
走高跳	2	4	0	0	0
走廣跳	2	1	3	0	0
投彈投	1	3	2	0	0
投槍	4	2	0	0	0
圓盤投	0	4	2	0	0
	46	27	17	5	1

慶明決勝戰 三對三無勝負

一勝一敗로마친慶明野球리그戰은八日午後二時부터目黑球場에서決勝戰을有田主審慶應先攻으로開戰되야同軍바테리慶應桐原岡田、明治湯淺梅田으로끗세히싸와三回에慶應一點六回에明治一點을엇고이어서二點을어더三對一로勝敗가決定되얏든바慶應又復二點을恢復하야三對三同點으로『엑스트라에잉』에드러가『드로잉에잉』으로마엇다閉戰四時四十五分(東京電)

培材野球는今日 午後三時부터

普成高普對培材野球第一回戰은今十日午後三時부터市內貞洞培材球場에서연다는데兩軍은그동안猛練習을하얏슴으로當日은반드시壯觀을呈할터이라고

◇사진설명=(上)마라손의넷재까지 오른편부터일착강락원、이착최경락、삼착조동진、사착김흥빈(圓形)주고도에조선긔록을돌파한김수긔(下)우승한양정고보선수일동

第一回全朝鮮基督學生靑年蹴球綱領

참가단톄의련습은날로맹렬

조선긔독교청년련합회주최와본사후원으로 오는십사일과 십오일량일간시내뎡동배재(培材)고등보통학교운동장에서데일회전조선학생긔독교청년련합축구대회(全朝鮮學生基督敎靑年會聯合蹴球大會)를연다함은 보도한바이며 이날이 갓가워올수록 시내에잇는단톄는 물론이요 각디방에잇는 중등학교전문학교선수들은 련일 맹렬히련습중임으로 대회날에는 유당디방에감초여잇는 훌륭한 기술을볼수잇스리라고긔대되는데이번대회의강령(綱領)과기타규뎡은아래와갓다

◇大會綱領

一、本會는朝鮮에在한學生基督敎靑年會의互相親睦을圖하며蹴球의技能을獎勵함으로目的함
一、本大會는朝鮮學生基督敎靑年會蹴球界의優勝權을決定함
一、本大會에參加團體는專門學校와中等學校에區分하야競技를行함(但選手는在校學生會員에限함)
一、本大會는一千九百二十四年十一月十四、十五兩日間 京城貞洞培材高普校運動場에서擧行함
一、本大會는各優勝團에對하야本會에서特히한優勝컵을授與하며中等學팀에對하야는朝鮮日報社寄贈의優勝旗를授與함
一、優勝컵과優勝旗는受領團에서次回大會까지保管할責任이有함
但連三次優勝한團은永久히保存함

◇競技規定

一、每팀의選手는十一人으로하고候補者는二人以內로함
一、一人의選手權은一團體에限함
一、競技順序는抽籤으로써定함
一、抽籤의結果相對便이無한팀은勝者로認할相對者가棄權하는境遇에도亦同함
一、選手는競技開始前本大會委員引率下에入場式을行함
一、入場選手는必히『유니폼』을着하고競技開始三十分前에來場함이可함 但『꼴킵퍼』는異色『유니폼』을着함을要함
一、競技用球以外의球用은各自持參함이可함
一、決勝戰用球는勝者에게『위닝뽈』로與함

◇審判規定

一、審判은徐丙義氏著朝鮮體育會發行現行蹴球規則에依하야行함
一、競技用球는朝鮮『프레쓰』式五號를使用함
一、豫選戰時間은六十分、決勝戰時間은九十分으로하고『하푸타임』(休息時間)은五分間으로함
但休息時間은競技時間에算入치아니함、育爭時間은競技時間에算入함
一、審判이正刻에出場을命한後五分以內에出場하지아니하는팀은棄權으로認定함
一、競技의勝負는『꼴』로써定함(但『꼴』이업거나同點인時는左記成績에依하야判定하고若成績이가튼때는勝負가잇기까지十分式延長함
ㄱ、一般프리킥及코너킥 一點
ㄴ、페날티킥 二點
但直接으로『꼴』을得한페날티킥은此를成績에計算치아니함
一、豫選競技中『하푸타임』前半에『꼴』五点以上의差가有한時는競技를終了함
一、審判에對하야異議가生할時는審判會에서此를決定함

大門을破壞하고 가회동에절도

시내가회동(嘉會洞)일백二십오번디잡화상 문덕호(文德浩)의가에는 팔일밤에 장근문을부시고절도가 드러가서 시가이십원어치물품을훔처갓다더라

종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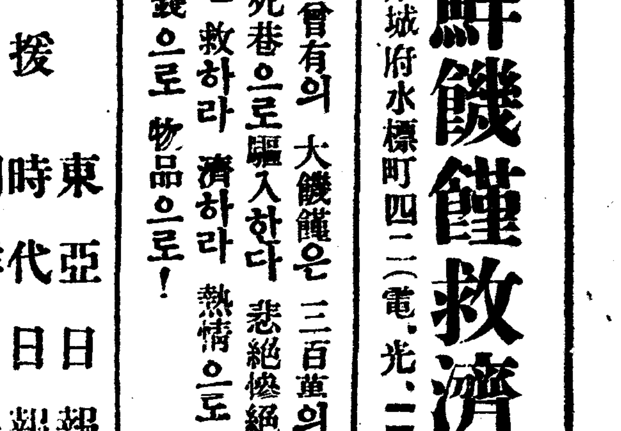
▲일본동경시령에서는『스도돈부시、가고노도리、세기노고홋마쓰』등의류행잘되는노래를풍긔상조치못하다하야부르지못하게하라는 명령을 나리기로되얏다한다、경성시내에서도멋멋기생은 노래미천이 궁하게되지나안할가▲전라북도부안디방에는 사냥군들이 밤낫까지총을 탕탕노아서 부근 백성들은『에쿠、갑자년란리인가보다』하고 신경을과민히군다고、경찰서에서는귀가먹먹하도록▲날이좀치워지자시내에서는처처에불이자주난다、해마다이때이면경험하는바이지만、일반은특히조심할필요가잇슬것이다▲경성시내파출소를우편후로철도가벗석들어가는현상이잇다고、괴한이도깨비인가、경찰이등한한가

朝鮮饑饉救濟會

京城府水標町四二(電、光、一三九九)

近古未曾有의 大饑饉은 三百萬의同胞를 饑死巷으로驅入한다 悲絶慘絶한이 現象을 救하라 濟하라 熱情으로 血淚로 金錢으로 物品으로!

後援 東亞日報社 時代日報社 朝鮮日報社



地方은代金引換으로迅速調達함

京城府貫鐵洞百十六番地

海昌洋靴店

本店에서는紙上空文的廣告는絶對로不用하옵고薄利多賣와眞實無誤한營業主義下에서營業하와聲價가日進月步되옵나이다

그림으로三尺의童子라도專賣함이와서注文할수가잇고더라서地方에게신人士라도安心하시고代金引換으로注文할실수가잇슴내다

淋疾이나梅毒

各種藥으로不治하야苦痛하시는患者는病名을通知하시오永久根하는法을無料送呈홈

京城府竹添町三丁目四四五番地 崔禎鉉

今月十日부터開演 新派連鎖劇 金小浪一行

特色醫頭(活動連鎖劇)

一、忠義道 全七幕十二場
一、異域 全五幕十四場
一、夜聲 全六幕十三場
一、片時春 全六幕十五場
一、杜鵑花 全八幕十三場
一、海鳥曲 全八幕十八場 (尹白南作)
一、사랑의싹 全四幕十七場 (尹白南作)
一、長恨夢 全十八幕三十二場 (趙一齋先生著作 尹白南先生脚色)

光武臺劇場

京城府瑞麟洞一三九(세전안)

金光堂寫眞館

主 金光培 白

電話(光)三〇八番

사진을박이시라면금광당으로오시엿소서

少女가十三年前부터秋安郡上西面通井里白哲洙氏의妾이되여三男一女를産하고治産中인데哲洙氏가生存時本郡上下西面에在한田畓及家垈 [illegible]

全北秋安郡上西面通井里西七七番地

小女金姓如 告白

十一月八日(土曜)부터提供

◉佛國앨모리꼬에ー社大作品 人情活劇 生死의日 全六卷

◉伊太利암부로지오會社特作名畵 名女優마리아로아지오主演大力 戀愛悲劇 마라우에스도 全六卷

◉佛國파데社大作品 連續活劇 黃色의腕 全十五編三十一卷 第七、八篇 四卷上場

大豫告 東亞文化協會撮影提供 早川孤舟氏脚色及監督 社會活劇 悲戀의曲 全 篇

苦待하시요 上映日字를… 京城仁寺洞 電話光化門二〇五番

朝鮮劇場

當十一月九日부터

米國유니버살社作品 實寫 스크링·마ー카칭 全一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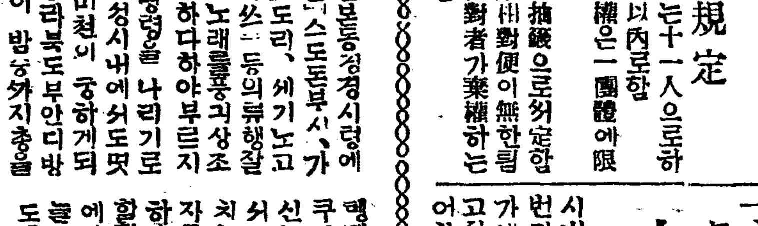
◉米國유社特作品 活劇 騎手의情 全二卷

◉米國파나마운트社大作 家庭悲劇 白絹의女 全八卷

◉米國유社代表的作品 連續活劇 다니엘뭉 全十五編 第三回上場 第七、八、九編 六卷

◉豫告◉
活劇 最大急行 全五卷
名畵 快傑단돈 全八卷
連續活劇 電光石火 全十五編三十卷
活劇 鐵火의부라이쓰 全十五編三十卷

松竹키네마社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



培材式 前高式 普通新式

業務擴張을自祝키爲하야特別大割引提供하옵내다

◇一打에對하야

品名	式	價格
特號品	培材式	金二十二圓
一號品	前高式	金十六圓
二號品	同	金十一圓
三號品	普通新式	金九圓五十錢
四號品	同	金七圓五十錢
五號品	同	金六圓六十錢
六號品	同	金五圓五十錢
七號品	同	金三圓五十錢
色帽子		金三圓五十錢
藍비루制帽		金四圓四十錢
喪見퉁帽		金四圓五十錢

其他學生帽子附屬品各種

學生帽子製造發賣 京城府橋南洞百十七番地 永泰屋製帽所 振替口座京城一三四〇三番

社說

朝鮮의資本主義

一

「十人의資本家는十人의資本家를併呑한다」고맑스는말하엿다 이一句는資本主義經濟의必然의結果인資本의集中現象을가장明快하고適切하게說明한것이다 元來資本主義그것의中心生命인自由競爭法則에依하면 大資本은小資本을併呑하고 大地主는小地主의土地를兼倂하야 多數한無產者群을產出하는것은 스사로免치못할道理이다

밧구어말하면 모든日常生活上의必需品을爲始하야 其他一切의物質的財가 使用價値와比例하지안는 交換價値 l 貨幣價格에依하야 運命이決定되는外에 利潤收得을 主眼으로하고行하는바 商買自由 卽生產及其外一般原料에依하야生產된바 商品이 個人個人의利潤收得慾을 中心으로하고 運命이左右되는外에 結局 一人의大資本家가 十人의小資本家를 併呑하게되는것이다 이것이資本經濟制度의特色이다

二

그런데 朝鮮의資本主義는 그歷史가 길지안타 따러서 朝鮮社會內에서는 資本主義가圓滿한 積極的發展을 遂치못한것이 可히推敵치못할事實이다 그러나 資本主義的法則아래에서모든社會組織이支配되고 全生產機關이 움직이고잇스며 아울러 資本主義그自體의 廢頹 缺陷으로말미아마 發生한바 害惡과病弊가 極度로 展開、醱酵되야서잇다는것은 苟且한推斷보다도 事實이證明하는바이다 다시말하면 오늘날朝鮮의經濟形態는 누구나首肯하는바와가티破產狀態에잇는터인데 이와가튼破產狀態에써지게된것은 그原因을溯究한다면 여러가지의理由가伏在한것을指摘하야說明할수가 잇스나 大體的으로말하자면 朝鮮의地方自足經濟가 破產의非運을遭한것은 全혀外力의侵入에基한것이라할수잇다 또한資本主義文明그것이 輸入되기를朝鮮의社會組織이 아주그것을 能히包容하야 成長發達케할만한時期에 잇지아니하엿든것도勿論이려니와 더욱히 帝國主義的侵略의方便으로써 侵略國家가 輸入하엿다는 그事實을看過치못할것이다

三

우리나라에 近代資本文明이 輸入된時期를 强히 斷定한다면 甲午更張以上을 溯及하지못할것이다 卽地方自足經濟形態가 문어지기를始作하고 새로운資本經濟形態가 그것에가름하야 發達을비롯하든時期가이쌔엿다 그런데 이時期는 벌서그時期가아니엇다 저歐米列强國에는 이資本主義文明이 이미爛熟의時期에達하야 年年히膨脹하는人口問題를解決하기爲하야 植民의地域을 東西에探하고 過剩한生產物을輸出하기爲하야 市場을世界에求하엿섯다 그런結果西方의中國에서는벌서歐洲列國의利權爭奪戰이어우러지고 競爭의反目이閃忽하야 或은利權讓與或은港灣租借 或은鐵道敷設或은領土割讓等에餘念이업섯든時期엿다 全世界를通하야 怒濤가티휘몰려오든 弱肉强食優勝劣敗의風潮에 모든弱小民族과 所謂未開種族들의 運命은風前燈火가티 어느時期에어느口에併呑이될는지알수업시되엿다

四

이지음에 東方의新興國日本은 明治維新이라는 改革期를 지난지벌서 三十年의長歲月을經過하엿슴으로 압흐로는文明國으로서 자리가제법잡히고世界的으로活躍하라는野慾이漸漸하야 大陸政策을國是로定하고 第一着으로日淸戰爭에奇勝을博한後 그餘勢를朝鮮半島로돌려 文明을 輸入하기비롯한甲午更張이엇다 이러틋게야輸入된것이帝國主義的侵略의黑手와함께하엿스니 朝鮮에서資本主義的經濟形態가 自由로운發達을遂치못할것은 必然한事勢라할것이다

五

이와가티 自足經濟形態가破綻되는時期에가름하야 獨立될새로운形態인資本經濟가 自由發達의路를失하고 侵略과搾取에蹂躪되야서 畸形的으로 資本主義에서 어든바成果는엇지못하고 오즉 그缺陷과弊害으로因生된바 病弊와害惡만을이바지하야밧게되엿것이다 그럼으로朝鮮의資本主義는더發達할만한餘裕도잇지아니하려니와 現下의經濟的現象으로보아서 到底히匡救키어려운 末期에잇는것이라고 斷言할수잇는것이다 따러서새로운經濟形態로써 이末期에써저잇는資本主義經濟形態를가름하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쐐룽치』의謠言으로

몃번이나시달림을밧고 군벌의싸홈에불을바더

悲慘한淸皇室의末路 (三)

잇지도안흔동이구름을라고하늘에올라가는것을꿈에보고서별안간에 청조복벽의상유(上諭)를나리게하고 다시대청데국의관제대로 대신상서(尙書)태학사총독(太學士總督)하고 쏘노핫든것이 사백여주에서 듯고일어나는반항의고세에 당장에 부수수하고 마치구름이흐터지고 꿈이쌔듯 곤한꿈은 다만갈바를모르게되엿다 이사이 만히입에오르나리는 단긔서와조곤(段祺瑞)이가 호국군(護國軍)을이르켜가지고 동서로 쳐들어오는바람에 장훈의다리고왓든

오천명쯤 되는군사는여디업시 결단이나고 장훈은어느나라공사관으로도망을가고하는동에 복벽된청조의운명은 말하지안어도 짐작하게되엇다 지금까지도 중국사람들이 그복벽소동을가르처 일각텬하(一刻天下)라고한다 일각이면십오분이니 복벽된청조가 십오분동안에 꿈가티생겻다가 꿈가티 흐터첫슴을 조롱함이다 그러나그는어림도업는 장훈선님의 꿈가튼번국이엇고 선통데이나 또는청황실에서는 원치도 안튼일이엇슴으로 결국장훈과 강유위가튼사람들이 다그죄를뒤집어쓰고

청황실에는큰화가업시 지나가게되엇다 그러나 중화민국과 청황실과는 김흔인연이잇서서 봉의소리만나면 청황실은 外닭도업는풍파를 맛나게된다 그는청조의국긔가 황룡(黃龍)긔인 外닭에 청조복벽을말하려면 쐐룽치(掛龍旗)를부르는 外닭이다 무엇이고 중국의정국이 좀흔들리어서 동성ᄒᆞ 성하는긔색만 잇스면 어리석은ᄇᆡ성들은 곳『쐐룽치』를부른다 그는지금外지중국정계에서 내로라고 제법꼰대하는 ᄌᆞ릿을하고 날쒸는자는 모다청조의구신(舊臣)이만흔고로 물정도모르는백성들은 에쿠이번에는정말 『쐐룽치』를하나보다하고 청조에게는 별로반갑지도안한요언(謠言)이일어나는것이다 그러나청조의구신들이란자들은 그러치 청황실을위하야지극스런생각도업고 엇지하여서든지권세와재물이나 글거드리려할ᄲᅮᆫ이다 무엇보다권후야삼백여년동안에 모아노흔 청황실의모든보회는어느틈에누구의손으로나아가는지모다서양부자들의손으로들어가고 청황실의 수중에남어잇는것은 거의다 비슷비슷하게 위조한놉픔만 남어잇다한다 또

선통데는 매우구차하게 지내게된다 ᄇᆡ년이아니라 두런운 쐬한세음인지 하지마는 어청황실우에비로밧는 것이 해마다사백만원식이라 하지마는 어록(祿)을밧고눈압헤서온갓아첨을다하는 신하들도 실상인즉아모사람다운참스런맛이업슴으로 텬질이총명한 선통데는 각색개를만히먹이며 개만은 그래도정 …

데는 다시대청뎨국황데가 되어보겟다는 지각업는 생각을하기는고사하고 될수잇스면 그의미업고거짓에 무쥐씨운 생활을버서나서 사람다운 생활을하여보면조켓다고한다한다 그리고그는

영문학에도매우포부가 깁고 구미(歐米)의사정에도상당이지식이잇슴으로 엇지 하여서구라파(歐羅巴)에류학이라도 가며하고 벼르고잇다한다 그러나천대청데국의 황데려하는 거특한직함은 톱이어 그분에게부자유한구속이되어서 여ᄀᆞ히 무의미한 생활을하고 잇게되엇다 그러나 어수선하기 짝이업는중국의정계는금년에도소절(蘇浙)전쟁이니봉직(奉直)전쟁이니하고군벌(軍閥)의수두들이싸홈데업는차옹을 죽을둥살둥하고 잇는동안에 정말잘 입지도먹지도못하고이리커리 울녀다니며 남의

총알바지가되어서한번에도삼천명 사천명식 죽어넘어지는것은 그불상한백성 들이오 이제또자금성(紫禁城)안에아모영문도 모르고잇는 애꾸진선통데가또붓을 밧게되엇다 풍옥상(馮玉祥)의군사는자금성을둘러싸고을러대기를시작 하엿다그의운명은과연엇지될는지?

二萬餘의中國人

인천항을거치어조선에 위협밧는조선인로동자

중국(中國)로동자가 최근 일이년래에 다수히 조선으로건너와서 로동을함으로 조선로동자에게만흔영향이미치던중금년에는더욱심하다 이제 인천(仁川)을통하는중국로동자의수를작년과금년을비교해보면

작년일년중입항	六三一八
동출항	六一九一六
금년십월外지입항	二六四六三
동출항	一二六二七

권긔와가티금년은십개월반으로도작년일년분에비하야금년이작년보다입항에이만일백사십오명이나늘엇고 출항도비교적 만히늘엇스니 갓득이나 령성해가는우리조선로동계에얼마나타격을주엇슬것을 미루어알수잇다

百六七十萬圓

중국인의버리 (仁川稅關)

이에대하야인천세관(仁川稅關)모관게자는말하되 금년에는 삼월부터 시작되야 중국로동자가엇지만히밀려오는지아조골치가압핫습니다 그들은대개조선에와서반년혹은일년에한번식고향으로건너갓다가오는터인데그들은고향으로갈쌔마다 오십원이상 현금을아니다 을버려가는 터이니금년에 건너온이만여명이 반년간에 버러가는 돈만하여도 일백륙칠십만원이라는큰금액에이릅니다그들은아시는바와가티의식이 간단하고 저축심이만하서 조선로동자보도 삯전이 매우싼터인데도 그러케만흔저축이되는 터이라고 말하더라(인천)

忠猫義狗

주인의죽은후 짜라죽은미물

인천의이약이거리

인천부(仁川府)내리(內里)오십이번디리교옹(李敎雄)의안해성녀(成姓女)(七二)는약삼개월전부터 병으로 신음하다가지나간십월이십오일에 드듸어이세상을 떠나는동시에 거짓말가튼사실이 발 되엿다는데 그자세한늘를 듯건대 리교옹은칠십여세가되도록실하에

일뎜혈육이업시가족이라고는다만내외두사람뿐이나단란한가뎡에화락한긔운이넘처어동리사람들도모범이될만하게지내오든중그부인성씨도또한자선심이풍부한부인으로서『고양이』한머리와『개』한머리를집에다두고십오년동안이나자녀와다름업시길너오든바 결국병석에 누어서마츰내 회춘치못하겟슴을 자각하고『개』와『고양이』를불너서 말하기를 내가죽은뒤에는 너의들을 거둘사람이업슨즉 나죽기전에먼저죽으라하며 비참히 말을하엿다는데 아모것도 모르는미물도그말를 듯는듯이 꼬리만흔들뿐 이엿섯다는 바과연『고양이』는그부인이사 망하기전 약열흘권에 별안간 죽어버리고 『개』는또한 병이들어 아모것도먹지를안코 그부인의병석을써나지안코

십여일을 알타가그부인이죽은후장식을거행하든날오후두시경에데주제(題主祭)를막지내자집에서 죽엇는데 리교옹은그『개』의죽음이실로감복될쑨만아니라 그부인성씨가 병석에서 유언하기를『개』가죽거든잘매장해주라하엿슴으로사람의죽음과 다름업시그부인의무덤압헤다가 오일장으로 매장하엿다는데 이 말을들은사람들은 그『개』와『고양이』는참으로 충묘(忠猫)의구(義狗)라고말한다더라(인천)

昨冬市內各處에 放火한眞犯逮捕

일년만에일본삼중현서 사건은의외로확대될듯

작년십일월팔일새벽에시내본뎡(本町)이뎡목 본뎡사뎡목 강괴뎡(岡崎町)앵정뎡(櫻井町)명치뎡(明治町)등디에서 일시에 별안간불이나서 잠시간 수십호가 쇠소된 대화재는당시에 보도한바와가티여러가지

유근무근의풍설로인심이 자못불안 하엿스며 경성디방법원검사국(檢事局)과소관본뎡경찰서에서는 이래거의일년동안이나활동을하엿스나 아머증거를 엇지못하야 고심중이든바 지난륙일에 그진범인을일본삼중현(三重縣)조우경찰서(鳥羽署)에서톄포하엿다는데이제 그내용을 듯건대 본뎡사뎡목일번디에잇는 모회사원 산하평삼(山下平三)이란사람이일즉이자긔집에 화재를낭하고 얼마의

보험금을 바든일이잇든 중그자는 그보험금에 맛이들려서 그와가티 방화를하고 사실이발각될가 념려하야 곳자긔의고향인 권괴삼중현으로 도망하야잇다가 최근에그곳에서 또방화를하고 조우경찰서에 톄포되어그와가티판명된것이라는데이조회를바든 본뎡경찰서에서는다시대활동을하는중인바의외의인물이련루자로검거될모양이라더라

本町署落成式

작일오전십일시에 본뎡경찰서에서는작구일오전십일시부터 신축락성식과 피로연이잇섯다는데 관민오백여명의출석자가 잇섯스며자미스러운여흥으로오후삼시경에폐회하얏다더라

饑饉報告演說

또경찰이금지

긔보한바와가티긔근구제회주최로동아일보 조선일보 량사긔자를 청하야금구일밤 일곱시반부터종로 청년회에서 긔근참상보고 연설회를열고자 하얏스나소관종로서에서는 금지를 하얏슴으로 마츰내개최하게못 되얏다

仁米製出玄米

四萬四千餘叺

거월초순부터 인천곡물계(仁川穀物界)는本舞臺에入하엿는데 仁川米商組合의去十月中玄米製出高를보면就業工場數四十四個所의玄米總數四萬四千四百七十七叺인바前月閑散期에比하면三萬七千四百八十四叺이增加되엿더라(仁川)

仁川의移出牛

인천으로부터去十月中에日本에移出된生牛는總計一千八百二十五頭요 그價格은十二萬八千四百五十五圓인바移出地는下關、香川、堺等地가最多인바移出頭數가今年八月以來第一多數에、하얏더라(仁川)

◇集會◇

◇英語發音法講話 今十日午後四時半鍾路靑年會舘에서『크롤』氏를請하야中等三年程度로講話 聽講料五錢

紀念品抽籤은今日

본보지면혁신긔념품추첨은오늘오전본사에서 당첨결과는당일저녁신문에발표긔념품은전부배달

조선일보의 경영자가 변경되고 지면을 혁신하야 외양으로나 내용으로나 면목을 일신하게된 이때에 조선일보를 길히애호하시는 신구독자 여러분과 깃붐을가티하기위하야 가장 흥미잇는방법으로 긔념품을 드리게된 본사의계획은 이미 긔념권의 배달을 마친터인즉 독자여러분도 충분히 아시는바어니와 그에대한 추첨은 예고한바와가티 금일오전 본사안에서 각신문긔자와 경찰관의립회한곳에서 일등오인으로부터 칠등륙백십오인에 일으기까지 일일히 공정하게 추첨하기로 하엿스며 그결과는 십일일 본보지상으로 발표하겟스며 당첨경품은 십일부터 착수하야 일일히 배달하여드리게 되엿습니다 여러분 잠간만 기다리시요 흥미잇는 추첨의결과는 래일본보에 나타날것임니다

朝鮮日報社

投稿歡迎 啄木鳥

十四字 五十行 以內要 住所氏名明記

무엇하자는同業組合이냐

◇우리海州에 縊洲組合이라는것이생겻다 그目的은 勿論同業者의便宜와共同利益을爲하야생긴것이다 ◇이組合이생길때에는 여러商業家에게서 幾千圓의大金額을基本金으로募集하여가지고 그商業運送部안에看板을걸고 그事務處理를 運送部主人趙某에게 委任하게되엿다 ◇그런대 그事務處理의委任을마튼사람은 自己의責任과義務를 짝지아니하고 다만肥己之慾에 눈이어두어 千餘圓의 基本金부터 有耶無耶中에消費하여바리고 自己의몸을 숨겨바렷다 ◇趙某의 無信無德함을 다시말할것도 업거니와 나는다시 關係者諸君의 無責任함에 놀라지아니할수업다 이現狀을 보고 엇지一時라도 善後策을 講究하지안느냐 ◇縊洲組合은 元來同業者의切實한要求에依하야 만흔期待와希望中에서 생겨난것이다 各商品의改良과統一을爲하야 또價格의統一과販路의擴張等여러가지로 協同努力할必要가잇슨것이다 ◇이러한要求에應하야 여러사람의期待中에서 생겨난組合이 一個人의背任으로因하야 그發芽期에 挫折된다함이 얼마나 가엽슨일이며 憤慨할事件이냐 ◇이것으로因하야 우리는다시아무것도할수업다고 自暴自棄하고말것이냐 아니다 우리는이것을殷鑑삼아 더욱더욱 努力하여야될것이다 비록一次는失敗하엿다할지라도 다시內部를整理하고 適任者를選定하야 縊洲業者의 必要機關인이組合을維持하여야될것이다 ◇나는이러한意味로 該組合關係者諸氏에게 一言의苦衷을告하는것이다(海州鄭順享)

奇人奇緣 (12)

金浪雲 譯 瀘心汕 畫

八、흉계

경호는좌석을흥(興)이게하는남자는아니나 박사의집만찬(晩餐)에는 적당한손님이라할수잇다 첫재로는 책을만히 보앗스며 둘재로는그다지 속(俗)된일흠이야기하지안는다 그런아니라 더욱히박사의저서(著書)를읽엇슴으로 박사와이야기가 어울리엇다 그러고춘자는 그가온데에잇서서이야기거리가곳나지안토록하여준다 과연박사는 특별히흥이나서 이 조흔일긔를긔회로 목자긔와가티 텬문대에 올라가서우주의깁흔비밀을관찰하자고 작구권하야 마츰내경호로 하야곰 승락하게하엿다

한번도자긔집을떠나서잔일이업는경호가 자긔도 영문모르고하로밤을이집에서자게 된것은 대톄누구의힘인가 물론박사한사람의 힘은 결코아니다 춘자는 엇잿던 경호가 래일아침자긔집에묵게된것을크게깃버하나이내자긔의부친에게끌리어서 텬문대로가버리게되어서는큰일이라하야그러려기전에긔어코차(茶)를드릴터이니 안방으로가서 가시라고하야 또한승락을 바덧다 경호는약속한대로텬문대를다마친뒤에 곳안방으로갓다 그방에는춘자의 아주머니되는 두부인이 잇서서 엇더케하든지 상호의뜻을일우지아니하면 안되겟다는 결심으로 춘자가업는동안에 춘자를 한것칭찬하고 잇다 춘자도자긔를 추어줄시간을주기위하야 차를 준비한다는 핑게로 한참동안을들어오지 아니하엿다 두부인은 번갈러가며쉴새업시 춘자가아조면밀하게 집안을다살러간다는일 다만 정직할뿐이오 조곰도꾸밈이 업다는일 그동안구혼하는사람이 여러사람이잇섯지마는 경호와가티

그러케진실한 사람이 아닌고로 모다거절하엿다는일 평소에 다른사람에게대하야는이러케숨김업시실정을이야기하는일이업스나웬일인지당신에게대하야는오래부터 친한친구와가티 생각되는다는일 그밧게말로할수잇는대로는 모다주어섬겻다 또한자긔들이쓰고 다것을 죄다맛보고난그만치 로글로 말하지아니하고은근히 그럴듯하게 주어섬겻다 그래서 이세상의 그러한 리면(裡面)을조곰도알지못하는경호로하여곰 엇잿던 구름속에헤매게 맨들어노앗다 그다음에 춘자도 들어오고차도먹고 그러고 춘자는피아노압흐로가서 자긔가뎨일 잘탈줄아는것으로 한곡조를 타들린후에경호를 내어노앗다 경호는바로텬문대로갓스나 그다지 신긔한것도보이지아니 하엿스며 그이튼날자긔 집으로 돌아갈쌔에는과연창배가 예언한 바와가티요다음에는 꼭어머님을 모시고가야겟다 이세상에 춘자와가튼숙녀가잇는줄을 아시면 어머님이얼마나 깃버하실가? 하고 거름을옴기며 중얼거리게 되엿다

경호가집으로가서 자긔 모친에게 춘자를칭찬한것은 이루다 말할수도업섯다 몃칠동안을 춘자의이야기로만 보내엿다 모친은 정말그런가 안그런가 하고 어느날상호에게 물어보앗다 그러나 상호의하는말은아조정반대이엇다 속아지가 백하고 고집이세고 거짓말하기를 썩먹듯하고 외면으로는 령리하나마 속은헌치고 조곰도 취할뎜이업다고까지말하엿다 모친은 누구의말이참말인지를 알수 업것다 그래서 엇잿던 친히가서보리라고생각하엿다 실상경호가 이제곳결혼을할것가티 서드는고로어머니의 책임으로도 가보지아니할수업시되엿다

이러케 생각하고 잇는동안에경호의집과 박사의집에 여러가지일이생겻다

첫재상호는 자긔가 말한바와가티자긔의 직무를불이어서 그돈으로려비를하야『인도』로버리하러간것이다 그는나종에 흥농하게되어가지고 와서 박사의막내딸영자와결혼 하겟다하야 떠나기전에영자를보고 그런뜻을 말하엿스나 영자는 ᄇ로부터 론돈으로가서 의학을배워가지고 훌륭한녀의(女醫)가되려니 남가일평생남편을 엇지안켓다고 말하엿다 그러나상호는당신을사랑치안슴니다 하고거절을 당하는 것보다는 절망이아니냐가 엇잿던지자긔가 돌아올때까지 시집만안잇스면조켓다 고하고떠낫다 둘재는 경호가 크게한번자긔집을 이르켜보겟다는 생각으로정부(政府)의 촉탁사업(囑托事業)을마타서 벼슬가튼직무를가지고 로서아로 출장을가게된것이다 셋재는 박사의아들 창배가귀양사리와가티 먼 호주(濠洲)로쫏겨간것이다 넷재는 한씨의 권장을마츰내 남의손에넘기고 식구들은모다 드듸에잇는 조고만한은로소로이사한것이다 그러나 머대로한씨의집일을보던 사람들이 더욱히 원통히생각하고 빗쟁이에게 단단한계약을하게하야 그수입되는중에서 매삭얼마식 경호의모친에게로바치도록하엿다 그래서 숨어살으며 절약만하면녀말 안으로는 엇더케박사의돈은 갑흘수잇게되엿다

멍텅구리 헛물켜기

(30)

둘재조건

(一) 윤바람은 둘재조건으로 (二) 칼표가 잇서야한다고뎨출 (三) 멍텅이는 돈만잇스면살줄알고 (四) 돈을내여다 또랑패

婦人藥 金剛山精力

부인게에—조흔쇼식이왓슴니다? 일거양득이외다、일반냉증과경도가고르지못한데특효하며、일개월만복용하시면、아모리쇠약한부인이라도、몸이건강하야지고、혈분이죠와지며、따라서얼골에도화색이낫타나며、얼골이、검고누루고、잡틔가잇난것은홀연이다 업서지고、참으로곱고、묘한얼골이됨니다、몸이쇠약하야지고얼골이말너죽은새와 지미가안고、검어지고누러지난 겨을분을바르다 미안슈를바르다 죽은새업서지난

약을바르다 하면엇지얼골이 고와지겟슴니까내부의병으로、하여얼골에나타나는 것을얼골에만 무엇이나무엇이나 바르지마시고、금강산정력 일개월분만 잡수시면 냉증과허리압흔것、경도가고르지못한것을다제하고 신체가건강하야지며、수태치못하시는부인은물논수태도할수잇스며、얼골에도화색이나타나며 얼골에잡틔가、다—업서집니다、부인약에실패허신부인은긔회를일치마시고 속々히복용하시요

◆일개월분五十錢

京城貞洞壹番地ノ壹 大陸製藥公司

여러분의入學期를待하고渴望하시는學校에入學코저하시거든

朝鮮各道 師範學校 入學準備書 定價壹圓五十錢 送料十九錢

高等普通學校 入學準備書 定價壹圓 送料拾壹錢

大正拾參年度 高等普通學校 師範學校 實業學校 入學試驗問題解答 定價七拾錢 送料拾壹錢

總發賣所 京城府寬勳洞一三〇番地 振替京城一〇二七五番 以文堂

增田醫學博士、常持醫學士 共著

朝鮮文 神經衰弱性慾不全 化學療法

本書의價値는讀者의實行에在한 神經衰弱、生殖器衰弱者는一讀하야生의歡喜를得하라 無代進呈希望者는葉書로特別히하는대로無代進呈함

東京市京橋區弓町二十二 弘濟藥院

四六版美冊 定價

安全第一 かぜ薬 アンチピリン丸

最良의解熱鎭痛特效藥을配伍하야强心作用을併有하야安全하며副作用이無하며効顯著大한理想藥이라

主効 ◇感氣治熱流行性感冒 ◇頭痛 ◇百日咳 ◇학질等其他熱病一切。

價 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

登錄商標 蛇印 ジャシルシ 商標御注意

大阪 東京 本舖 丹平商會藥房

全鮮藥店에서發賣

學藝

十一月創作槪評

星海

春園의 『H군을생각하고』 (朝鮮文壇)

H라는靑年의 짧은一生을 가장印象的으로 描寫한것이다 病苦로 失戀으로ㅡ그우에 또 貧窮으로지내다가從容히 이世上을 떠나게된 運命을 吾人압헤 如實히 내뵈엇다 이作品외무엇보다도 强한 魅力을 가진것은 吾人의게實感을 주는것이다 H의그悲慘한 運命에同情아니할수업는것이다 이것은 勿論 春園의 依例히그러한 筆致로서만 볼것이아니라 作中에나타난書翰의 句節句節은 적어도 H라는靑年의 참스러운感情의流露라고생각할수잇다, 病苦와 失戀으로 말미암아 모든생각이 感傷的에서感傷的으로 깁히깁히 파고들어가는 人生觀은 自然히 그러케될것이다 H란人物에 對하야 作者가取扱한바와 同感이다 異議가업다 조곰 不滿足하게 생각되는點이 잇다고하면그것은 肺病으로 죽어가면서도 殺壞를 떠나지안흐랴는것과갓흔 强한忍耐性을 가진H가 先輩인내란이의게 對한態度며 愛人C에對한態度가너무도 男性的이 아닌것이, 라고할수잇다 그러나이것은 누구의게던지잇는性格上의矛盾이라 이H에게만 限하야 實하는것은 너무나 苛酷한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作中에 C라는人物의 그림자는 대단히 엷고 희미하다고 아니할수업다 C란人物은 이作品가운데 한시도도히고純眞한淑女『타입』의女性인듯도하다 作者는웨c란人物에 對하여서는『스핑스』그대로 두엇슬가하는것이 疑問이다所謂戀人이라는H가病苦를참어가며 벌어보내는學費로써工夫를해가며 따로戀人을몃사람식두고 享樂를누리엇다는것이 이作品中에 무엇보다도큰問題라고아니할수업다 이와가티人間의게는 이러한反面이 반다시업다고할수업다 弱한人間으로서는 잇슴즉한일이다 H의게致命傷을 준것은 이失戀問題이다 나종에 病을看護하엿다는것갓흔것은 臨終時에다다러이커바ᄂ고 極楽으로 갈도라가라하며 훈뜻눈을 쓰당어주는것이나 그러케될것이무엇일가作者는 이러한最後의看護만으로 C는貞淑한處女이다 東京에서 이럿다커럿다하는것은 한中傷이나 風說에 지내지못한것을 說明한것이라고생각할는지 알수업스나 이것만으로東京에서 하엿다는 모든 行爲를 否定할수는업다 c라는人物이 『내』라는先輩의 電報한장으로 C를차저보앗다는 그것만으로無邪氣하고 貞淑하다고는 생각할수업다, 이것은 作者의速斷이다, 말하자면作者의 主觀이너무나이作品에活動을過함이나아닌가한다,

따라서이。란女性은 極히薰微하야 正體를붓잡을수업는 人物이대고말엇다, 正體를다른사람이 짐작할수업는것이 C란女性의特徵이라하면, 구만이거니와 그러치안으면, 作者가 賢淑하다고 說明은해바릴수업스리라고 생각한다

C란女性이 夢中에주는戀人과肉的享樂을주는 戀人을다각각 두엇다는것도 不安女性으로 잇슴즉한일이오 또이社會에는수드롭하게 設見할수잇는 事實이다, 이와가티弱한性格을 가진女性이라 學窓에든 녯날 戀人의그눈물나올만한光景을볼때에 티己의責任觀이라든가또는義理人情의感激에 自身의築枯를 도다볼餘暇가업시 어떠케든지 이病을救해주겟다決心하게된것이다, 그와가티敏感한 同時에感激性이 만흔것이다, 感激하는瞬間에는 모든것을다 이저바리게되는心理를 우리가 經驗하엿다하면 C가東京에서 어떠한다든異性에對하야 憧憬하는그때에는 故國에잇서 學費대주는 學匠님愛人이야眼中에無論업슬것이라한다, 그가어떠한새로운愛의對像을發見하고 突然하는瞬間에무슨冷靜한判斷이잇스랴? 이러한性格을가젓다는C라야만비로소愛人을背反하엿다는것과 看護하엿다는것이 矛盾인듯하고도矛盾이 안인것이비로서明白하게되지나아니할가한다그리하야이와가티됨에좀더波瀾과曲折이잇서야할것이다 이와가튼 主要한部分을그대로 이와갓티 簡單히處置해버리는 것은 엇지한일인지 알수업다 좀더 俱體的으로 이人物을 取扱하엿드면 이作品은 그만한效果가 더욱잇서스리라고 生覺한다, 그리고 이C란人物見으로그러할인지는알수업스나 C란女性은 處女性을 안일어바린것처럼 알고 그것을 辨明하는듯한形跡이 보인다, C의貞淑을 庇護하는데에는 이것보다도더큰方法이 업겟지마는 讀者의 생각에는 作者가 생각한그것과는 다른方面을아니생각할수업다, 내의생각에는 내가 이러한作品을 取扱하게되다하면 나는 좀더現實을 凝視하야 H란靑年의 죽엄을 促進식혀 死의淵에 미러너은것을 如實히取扱할것이다, 왜ㅡH란人物의 肺病가 惡症化한것은 C란女性에對한 失戀(이것은H의錯覺인지알수업스나)으로말미암은것이오, 速히 죽게된것은 最後에맛난 戀人과 健康을 시아리지안코 過度의肉交를 한것으로取扱할것이다 科學的으로 우리가 이問題를取扱할때에 C란戀人과 서로만날때에 그래도 步行할힘을 가젓든 H임으로 肉의衝動을 猛烈히늣기엇슬것이다, 더구나肺病患者가 肉에 對하여는普通人보다 執着이甚한것은누구든지 아는바이다, 萬人이한갈가치 그러하다고 생각할수업스나 作者가너무나 이H와C사이를 純化식히려努力한 形跡은 도리혀이作品에 한瑕疵를 좀이나아인가한다, 좀더 現實을 確切히취엇더면 이作品의效果는純化식히랴고한 努力그것보다만하엿스리라 생각한다 그러나엇잿든 이作品은 읽는사람으로하여금中途에 壓症은내지안흠만한價値는 確實히잇고 또그만한實感을 우리에게 주는것도事實이다

八峯山人의 『붉은쥐』 開闢

이作品에는 抹殺된部分이 만타 그럼으로 그內容이엇더한 것인지 全部읽을수는 업섯다 따라서만일 그部分이 全篇中에 思想의核心이되엿다하면 내의지금말하랴는것은엇더한抽象論에 지내지못할것이다結局 一斑으로全豹를評하는셈이되고 말는지도알수업다 그러한點이 잇거든作者는 叱를諒解하기를 바란다 그야말로盲評이니까ㅡ

그런데 이作品을나는세가지의다른마음으로읽엇다 第一착옴에(1)을읽을때에는 박영순이란主人公의 事件이 展開하여올것보다도 며지것봉을써달라고하는 엽취방 녀편네의 事件이이作品中에는 重要한 『례트』가되리라고 豫想하얏다 이것은이녀편네의직결네는소리라든지 모든自己事情을하소연하는말가튼것이어느事件보다도 만히取扱되엿고 돌니는말가운데에만은興味를늣기게된까닭이다 그리고『2』에이르러서는명식이란사람은 혜 理論을 조화하는 말성군이라고 생각하엿다 그러고 例超然한생각을 가즌이라하엿다 現代의 社會苦를 맛보는 知識階級의 한 典型의靑年이라고 생각하엿다 따라서作者의 이 心理描寫는쎄 深刻한곳까지이르럿다고 생각하엿다 엇던때에는너무나 잔소리가 만치나아니한가라고생각하엿다 너무나 들어가는동안에 壓症이나타나앗다 그리고 한疑問은 이영식의 人生觀에는 한矛盾이 업지나아니한가하엿다 그리고또 이러한것은 小說로 쓰는것보다차라히論文이나 感想文으로씀드라면 더조흘번하엿다고 생각하엿다(3)에 일르러서는事件이 너무나 急激히 變化함으로아니놀랠수업섯다 과자집에 들어가서 쌍을 훔치고 貴金屬店에 들어가서 金銀을 훔처가지고 逃亡하다가 消防隊自動車에치어죽엇다는것은 너무나突飛한事實이 아닌가하엿다 아모리하여도 常識으로는 判斷할수업섯다 그리고 영식이가 이와가튼 直接行動을 取하기까지에는 그心理上에 좀더엇더한變化와過程이잇서야할것이아닌가? 말하자면그와가튼行動을取할理由가 반드시잇서야할것이아닌가? 作者는웨이事件을 좀더俱體的으로, 明靜하게 取扱하지안하엿는가 疑心아니할수업것다(2)에서너무나厭症이생기도록한 心理描寫를 너무와서는 泛然히여인것이나아닌가 생각아니할수업다 一言으로말하면 이作品은 너무나 無技巧하다고할수잇지안흘가 文章에도 좀더『례와인』된言辭를 選擇하엿드라면하는생각도업지안햇다이것은未定稿이라 할수업는바이지마는內容의意味와 表現된말에는 두가지가비틀어맛지안는點所가갓갑스엇다 이것은읽을때의내의늣김이나 다시버읽여노코이것을다시생각할때 나는 이作品ㅡ에서ㅡ늣긴여러가지不滿를다시한번 도르켜생각해보앗다 이作者에對하야내가 생각하는것과가튼것을 그대로 注文하는것은 너무나無理라고하엿다 이作者는우리가보는바作品에對한技巧에는그러케頓着지안는것을알엇다 그리고이러한 技巧에는 아주無頓着한것이나타난것이라하엿다 表現派式의 主觀을무어보다도尊重히역임을 알수잇다 이作家의生命은여긔에잇슬것을알앗다 조고만한엇더한『가데고리』에집어넛코생각할수업다고생각하엿다 이러한 生命은永遠히잇슬줄밋는다 이作의 境地를開拓하는데에 加勢을 바란다(未完)

回想의靈

淳隱

뭄길의園柴에시달린나의몸이
눈물에엉크러진病床에서
悲哀가뭉킨感傷의노래를부를
때
◇
무덤에알미은獅子가
핏덩이흘르는나의靈을
애닯은永遠의衛害를 엣지위
주고가다
◇
무서운死의놀길에타고낫은
한가닥의남은삶의줄이
커덕해빗殘映에비칠때
안타갑게뛰는心臟의鼓動소래
아!이것이죽엄나라의
永遠의길을가르치는
麻痺의瞬間의哀曲이엿서라
◇
그리하야 沈默을직히든 나의
肉이
마즈막永別의길을떠나려고
서승지안코넘어나랴할때
눈물홈니며나의손을잡든그는
사랑의부듸치는碧波이엿든가
하노라

二三박,비컨病吟을回想하고ㅡ

惡魔의創造

ㅡRO CO COㅡ

『로코코!로코코!』
머리속에서 녹쓰른 엔진이
컬는발를 돌면서 도라간다
헐떡어리면서 돌아간다 기운질닷이 다ㅡ씨진듯이 덜그럭 덜그럭하면서ㅡ
『로코코!로코코!』하면서
그는 數업시 부르짓는다
기운이 업다, 힘이업다ㅡ
고 그는 늘 투덜거린다
그러나 투덜거리면 투덜거릴사록 그의 힘은 점점 弱하여진다
힘을 熱望한다 힘을 渴望한다
老廢의 象徵인『로코코』를 차지면서도 그는 힘을 熱望한다
그의 힘업는 語調여!
오! 『로코코』여!
아마 그는 이『로코코』란 말이힘을 가지게 될때까지 힘을 象徵하는 絶大한言語가 되기까지ㅡ아마 그는 쉬임새업시 이것을 부를것이다
赤旗ㅡ하면우리는『레닌』을 聯想한다 그리고는 슬라브民族을 盟主로한 帝國主義의 쓰비엣트를!
오! 우리祖國에서 내어쏘처라 저醜惡한무리! 洋코의 아라사놈의 ××들을!
짝쓰시스처라면우리는黑獅黨을생각한다 그리고는 또한커ㅡ힘업는 獅子새기를 가지고작난하는 뭇소리니를斷然한다ㅡㅡ그리고는짝쓰시스처!
그는 暴君이다!그는 獨裁政治의 暴君이다!
그는 이世上의모ㅡ든사람의게非難을밧는다
그러나 오!너이들아! 생각하여라!
그가 萬一現在以上의 더큰 힘을가젓섯든들!
그가 萬一려년以上의 더偉大한 努力이잇섯든들!
그의 走狗는이 온世上안에 瀰滿하엿섯슬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생각한 모ㅡ든行動은 커『無產者의 獨裁政治』라는假名보다는ㅡ더以上의 情熱的이요 詩的의感激을 우리人類의가슴에 주엇슬것이다
『모ㅡ든길은 로마에通한다』는 標語가 또다시全世界의人口에서 喧傳하엿슬것이다
世上의 모ㅡ든人類의 種類의際的은 반다시『愛國者의 獨裁政治』에는이잇슬것이다
ㅡ인런네이순넘의 理想은『레ㅡ닌』가튼 科學的理想主義者의게나 맛기라 그리하야다만 그의本能의野心만 滿足식히여라
오! 祖國이여! 祖國의참은무리여!
洋코의 北極 스라브를 너이는前日에淸族의게나對한듯이 大國이라고나 부르지안코 잇느냐? 오! 젊은무리여ㅡ 너이는 레ㅡ닌의 帝國主義를 讚美하고나 잇지안이하나? 애들아 그것이네이의名譽인줄로 아느냐?보아라ㅡ 그것은 불상하게도너이民族의滅亡이다 滅亡이다!
人種의改良?優生學? 人類의永遠한 平和?흥 모두들지랄한다
아모리케라도 해라ㅡ『내』가 업는다음에야 겨우人類의生活은 모두 天堂가든樂園에開放되겟는것을ㅡ
얘ㅡ 그러니그것이다무엇이냐? 영속에홋된내게도歷史上에果附한 民族으로만 記錄되여잇는朝鮮民族 將來에滅亡할 朝鮮民族ㅡ 그의게 그것이얼마마한 價値가잇는줄아느냐ㅡ
祖國이여ㅡ 오ㅡ祖國이여그것이비록 손바닥만한땅일지언정 내가이世上에처음으로産聲을부르지즐때내의잠을고요히이루어준 짱인것을?며 처음으로 나의 밟를셰워주마든짱우인것을?
音樂的이던 非音樂的이던아모라도 팬찬타。如何間 이따의 말를 내가 처음으로 코를 흙니며 범벅소리로 試驗하여본엇다?
내가 처음본사람도 이따의 사람이다?
오? 祖國이여? 祖國이여?아모리醜惡한 恥辱의 歷史를 가젓다 하드라도 너는나의祖國이니라
그럿다 나는너를 사랑한다 無限히 너를사랑한다。
光榮잇슬 나의 祖國의 나의 쎠를파뭇고자 한다
『아리랑 타령』이全世界의곳々에 퍼커 모ㅡ든사람의 입으로써 노래되기를 바란다
東方의 英雄ㅡ 케말, 파샤여, ? 나는 너의 그 힘차 뵈이는 骨相에 키스한다
洋코배이 基督敎國놈들의게 S.tan 의 象徵을 뵈이든 半月旗에 나는머리를숙인다
오는팔에칼를 듯고 인팔에 코ㅡ란을 잡엇든마호메트以以上이 되기를 願한다
오?그리고 나는 大陸의 東端에서 떨々날니는 ××旗가 Satan 의 象徵이되여 커ㅡ世界의 瀰滿한 全能의主로 僭稱하는 GoD 의 무리로 하야금 그압헤禮拜케하기를願한다
갈곳에힘의眞理를빗내며 地球의東端에서 西端으로××의 바람을붙니키기를 願한다 六億의白人種을(中略)奴隷로써우리民族의 代代孫孫히 그들을酷使하기를願한다
正義가무엇이냐 人道가무엇이냐? 그따위假想의文字는중놈이나 예수敎목사놈들의게나 맥기라ㅡ오!眞人의 로코코의게는 힘을!오ㅡ칼을!
힘이여!너의일홈이『로코코』가되라!오!로코코여 너의힘이『로코코』가되라 그리고너의 專制的 獨裁的힘으로써 腐敗한退屈한 地球를改造하라?
(八月十三日에읍 쓴것이다네게보내라고쓴것이니네게로보낸다ㅡ)
×
나는내自身을 天才로自認하엿섯다 그러나 나는不幸히道德的 良心을가지고잇섯기때문에 내 自身에對하야만혼良心의苛責을 밧엇섯다 나는懺悔하엿섯다 그리고는 天才로부터平凡人으로 歸化하여 버렷다 그러나 平凡人으로 歸化한 나의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前日의 天才로서의自尊心이 만히 남어잇섯다 나는 甚히 그것을 북그러워하엿섯다 果然 平凡人으로서 天才인체하는 罪惡은 惡魔의 첫죽外에는 暱劣할 아모手段이 업다
平凡人은 사람이다 사람으로서의 自己의 職分을 알며 義務를 履行하며 完全한 사람으로의 生活을 하야나아가는 者이다
平凡人은 完全한 사람이다 完全한 사람이기 째문에 그는 天才의 畸形的發達도 업스며 또한 平凡人以下의 愚癡人의 缺陷도 업다 그는 完全한人格者이다
그는 모ㅡ든일을 平平坦坦히 進行식히며 圓滿無缺하게 일하야 나아간다
나는 平凡人으로 歸化한後 至極히 이平凡人을崇拜하엿다
그러나 멋칠못되야 나는 이平凡人으로의 生活에서 倦怠를 感하기 始作하엿다 平凡人의 너무 圓滿한 生活 變化업는 生活은 到底히 나의게 意義잇는生活을 주지 못하엿슴을 비로소 알엇다
그리자 나는 내自身에서 數업이 만은 缺陷을 發見하엿다 나는 缺陷덩어리 이엇다 안니 도로혀나는缺陷ㅡ그自身이라는것이可할것이다
그래서 나는平凡人에서 다시한번 轉化하야 愚癡人이되엿다,
平凡人에게 對하야 無限한 愛着을 感하면서도 나는 愚癡人의 一人이 되지 안흘수 업섯다
그러나 나는 世上에 普通잇는 愚癡人과는 조금그種類가다르다
世上에普通잇는愚癡人은 그래도 多少間 힘이잇다 엇더케하면 이愚癡人의 境遇에서 버서나서 좀더奇혼 平凡人의 地位에 일을수잇슬가하고 펵애를쓴다 熱望이잇다 渴望이 잇다 그럼으로 그네의게는 意思가잇스며 闘爭力이잇다
그러나 나는이러한 種類의 愚癡人이 아니다
나에게는意思도 업스며 平凡人이 되려는 渴望도업다平凡人으로의 地位로 부러의無抵抗의退却이다 無闘爭의 沒落이다
안이 나는愚癡人이라보다도 차라리 無能力者이다
너의말과가티 나는 痴漢이며 一卑劣한 動物이다
그러나보아라! 나는 이곳에 滿足한다 無上의快樂을 感하고 잇다
나는 榮華로운 빗나는 곳에서나려왓다。나려왓다。내려왓다。나는 내려왓다 다ㅡ내려와 내려왓다 인제는 밋바닥에탁닷다後進할곳은 아모데도업다 壁에 딱 마추첫다
나는 어엿분女子를 사랑하엿섯다 그리고는對應업는사랑을 歎息하엿섯다 그리다가그가 분발른것을 보고 또는그가 料理人집 계집애인것을알고 나는 그가아모 사랑할만한價値가 업는女子라고 斷定하엿섯다 이것은 結局 나의 自慰이엿다 畢竟은 나는 그女子를決코 사랑한것이 안이란것을 알엇다
녯날에 魔王과 天帝는 서로天堂의 玉座를 다투엇섯다 그러다가 結局은 魔王이 敗하야 地獄으로다라낫다 그래서 그는天堂과는 正反對의쩍인 地獄을 다스리게 되엿섯다 그러나魔王의 野心은아죽도 사라지지 안엇섯다
그는 언제든지 天帝의 조은는틈을 타서 하놀의玉座를 向하야 뛰여오르라한다 커ㅡ놉흔 하놀을向하야ㅡ。
秦始皇은 되지못한 天才所謂儒者란 闕者를 모두 불에 구어먹엇스며
項羽는 阿房宮을 불살너 석달동안 陣營을 밝히엿다
史上에 有名한 暴君ㅡ네로皇帝 그는 커음부터暴君이 안이엇섯다
一時는그는 一世의 哲學者 셰네크의 敎養을 밧어 善政을 내렷섯다
그러나 그는 곳 自己의 本分을 自覺하얏섯다
자긔의 本體가무어인가를 發見케 되엿섯다 그럼으로 그는 善政을 撤廢하엿다
貴치안은 自己의 어미 아그리피느를 죽엿다
씨ㅡ쓰ㅡ의 떠님인 그의안해를죽엿다
自己恩師의 子息이요 自己의친밀한學友인 者를 죽엿다
恩師의 動脈을 끈허 沐浴湯에 너허죽엿다
그의 叢父요 先帝의 親子를죽엿다
오! 죽여라 죽여라 貴치안은것은 한아도남기지말고 모두죽여버려라! 커ㅡ되지못한 神의 말을傳한다는 基督敎徒놈들! 慈悲를 말하는 건방진중놈들! 그者들을 살녀두엇다 무엇을 하느냐?
죽여라! 죽여라! 모두 죽여라!
네로皇帝는 羅馬全市에 불을 질너 모ㅡ든무리가 阿鼻叫喚하는것을보고높흔언덕에올나가堅琴을 彈하엿다 偉大한 藝術이라고 소래질넛다 오!그는 뜨로아戰爭의 勇敢한 노래를 놉히 불넛든것이다
그러나 叛軍이 왓다 叛軍!叛軍!
그는 叛軍의게 몸을 맷기지 안엇다
그가 畢竟 몰녀서 할수업시 되엿슬때에 그는 自己의 奴隸의게 命令하엿다
이러고 그는이렇케 말햇다
ㅡ『오! 歎息 할가나! 이世上은 이우에 더업는 偉大한 藝術家를 한아 일허버린다』ㅡ고
네로는 나의義經이다
나를 嘲笑하者는 嘲笑하라 비우슴대로 비우서보아라!
흥이놉흔! 全世界에 嘲笑한 無冥者여! 誹謗할대로 혀라! 나의 敵의 宇宙여!
모ㅡ든 힘을가지고라도 나를 업치눌너 보러무나!
逆境의 힘으로써 地獄의 地下低에서 火山이 爆發하듯이 올너갈 나의힘을, 너희는 預覺치 안느냐?
全世界 全宇宙를 破壞하여 惡魔의 創造를 建設할 나를 아느냐?
妖魔여! 나의過去의 愛人이라든 B.demoi Selle I.W여!너는 나를 嘲笑하는 妖魔의總大將이되여 魔海의 씨레ㅡ느以上의妖態로써 나를 녹여업시할녀하여 보아라 可燃性을 모두업시한나는 인제는그手段에 넘어가지안는다 너는 나의게 내가 過去에 너를사랑하엿다는 汚名을 두집어씨어 주엇지! 흥 요 走馬燈가티 變態를 돌니는 妖魔여!
그려나 들어보아라! I여!
鐘路서 쌈맛고 東大門가서 辱하드시 나는 너의게對하야 이려타ㅡ말한마듸 못하여보고 도리혀 數千里밧 서울에잇는 爲淸第二世의게 辱을 써보냇다 보아라! 나의 이偉大한 힘을!
劣敗者의 手段이다 痴漢의 策略이다 그러나 現世의陳腐한汚法보다는 이惡魔의 洗鍊을 밧은나의手段이 더ㅡ무서운것임을 너는 아느냐?
그러나 安心하라 昨年의 베아트리데며 올해의씨레ㅡ느여! 너는너의 個性을 맘대로發揮하라 그리고 小魔라도 되라!
나의 눈으로보면 아모價値도업고 Zero 以上으로 더 微微한 存在를 가진이小魔여!
魔王의 宣托을 밧어나는宣言한다나는魔王의豫言者다 안이이世上에는魔王이存在치안으니 내自身이 魔王입을 宣言한다
肯定의眞理 破壞하라 그리고否定의 眞理로써 代身하라 善과愛의 道를毁敎하는놈의 가슴에 叛逆의칼을 쏘으라! 그리고힘의消息 魔의道를設敎할지어다
오! 劣敗者여! 痴漢이여!偉大한 魔王이여! 世上의 咀呪을바든 十三使徒여! 나의指揮鞭이 흔들일때를 기다리라! 旣成宇宙破壞의 無形의大軍은임의 發程의準備를단단이 하고잇다
遠征의 날은갓가히 온다
오! 커소리! 몸날고씩씩리노래 보다도 더칠거우며여름날 雷霆소리 보다도더雄壯한커ㅡ魔王軍의 行進曲이여!
서울에 出現한 쓰아라토ㅡ스트라여! 나는 너를나의十三使徒의一人으로 任命한다.

ㅡ一九二四、十一月四日ㅡ

외로운기러기

金達鎭

달밤고서리찬져을밥
처량히울고가는
외로운기러기럭아!
兄弟를여희고
孤獨에스러서우느냐?
愛人을離別하고
사랑에그리워우느냐?
孤獨에슯거든
날 다려가고
사랑에그립거든
날 차저오렴으나

달밤고서리찬져을밥
처량히울고가는
외로운기러기럭아!
南海를건너서
北國으로가는냐?
北海를건너서
南國으로가는냐?
너 가는그곳이
눈물敎會堂이라면
洗禮를밧고자
나도따라가겟노라

省墓

金昌述

秋夕!

여름은갓다。재글재글 끌이우든여름은갓다。팟죽땀과붓두질을 고히고히 차가지고슬슬어데로가버렷다。그리고지금은가을이다。秋夕이다。제법선선한바람이 아츰과저녁에매웁게도이몸을뒤흔다。더위에탄 내싹이도는듯하다。

秋夕날이되면 사람들이省墓를간다。녯날의祖先을追憶하여가는지 그는모르지만은秋夕날이면省墓를간다。넓고넓은들가운데를지나 좁고좁은山길을거러自己의祖先이뭇친墓場으로간다。

나도아버지의재촉으로 省墓의길을나섯다。無意味한省墓의길을 나섯다。荒凉한墓場을向하야길을나섯다。

다른해엿섯드면 무명바지저고리에 모시다든두루막이를입엇을러인데 오날은가을의여름날이라 대림옷을입고가기로作定하엿다石山집세기에양말을신은나는날너갈뜻이발이가벼웁다 묵어운고무신에都市의거리로으슬렁으슬렁다니든 내마음은 내발은날늘뜻이가벼웁다

G橋를건너S派出所를지낸나는 淳昌으로가는三等道路로드러섯다 보한몬지가발아래에서 충을춘다

감을에부뎃긴『공수버』녯돌이 밧삭말넛다 밧삭말넛다 히부얀직알과모래만누어잇다 내에는물이잇서야할것이다 그런데 내에물이업다 아ㅡ이것은무엇을말함이냐?마른내는무엇을가르침이냐!이것은荒凉한朝鮮을 말함이아니냐?破滅線上에슨朝鮮의魂을가르친집이아니냐?우리는生을잇기爲하야朝鮮魂의生을 爲하야 生命소들반들어야하겟다 커ㅡ마르고말은내에물을흘니어야하겟다

石佛뫼압을지낼때 左右에 는여잇는논(畓)는을두렷코삿피력다。二十年동안 安寧히 지여오든논들은 지독한감음에 쇳들여 悲慘한 光景을 뒤우고잇다。朝鮮의 주림을 뒤우고잇다。朝鮮의凋落을뒤우고잇다。새파란논을볼때 朝鮮의마음은 寂寞하고나!논한마적이에 단거말 엇기 어려운穆景을볼때 朝鮮의 마음은배곱하운다。모내인그대로서 잇는벼(禾 등불에 朝鮮의 눈은 눈물이괴인다。

커ㅡ논을각울에 두손과 두발이안헛슬것이요 땅보리밤도 제단니를채우지못하고 곰훈배를 졸나맹을것이다。몹데이라밤잠도잘지지못하고 커ㅡ논을각구엇슬것이다。그러나그것이赤泡로도라감을이아 想像도 아니하엿을것이다。아아한마직이에서 말이난다는 이러한悲慘한 結實은夢想인들하엿스랴!

비지엿은 다시눈물이되고 땅보리밥은 곰조리게되엿다!이것이自然의 法則이라 할것이냐!造物主가잇다하면엇지이러하게도不公平한報償을주엇스랴! 自然의힘은 사람의힘을咀呪하엿다 아무리無感覺한自然이라하자 炎熱의아래에서 勞力한 製作한그ㅡ藝術品을蹂躪하여버렷고나!그들은얼마나憤怒에탓스며 憂鬱에잠것스랴 아아 朝鮮의魂은凋落하는고나!

ㅡ

숭숭한朝鮮입을엇지하랴!山을보라 누른빗으로장식하엿고나! 山도말넛다 아니다 山이말음으로 내가말음는가 내가 말음으로 농사가잘못된다 朝鮮의山川은水氣가말넛다우리의 朝鮮의山川에水氣를도드자!힘써서山川의脈을붓도다주자 血潮가潤澤하게하자!朝鮮의魂은 그때에산다 朝鮮의빗은그때에 빗칠것이다!

『그럿타!그럿타!』나는혼자 중얼대엿다 사람마다凶年이라 한다 戊子年보다는조금나으나 辛丑年보다도더한凶年이라고떠든다。人心은複雜하여간다。다만주림이란감정이그들을 거리로쫏처낸다。 주림이란魔物이그들을로하여금彷徨하게한다。

내祖先의墳墓에갈때까지 내마음은어지러워진다。朝鮮의주림이움작이엇다。

『내先代의시절에는 이러한朝鮮魂의悲哀를늣기지아니하엿을 것이라고』나는나의할아버니무덤우에서생각하엿다。

朝鮮魂아 들뜨지말어라!豊實히싸우고차워보자!주림을안고서쩌도라보자!눈물을붓잡고 改革해보자!붓은血管이석기前에朝鮮의마음을바로세우자!

一九二四 九、二〇夜稿

詩人兄님게

螢月

詩人兄님!
世上에 不具者가 만타한들
커와가튼 不具者가 잇겟슴닛가
눈이잇스나 盲人과가티
아름다운色彩에 고흠을모르며
귀가잇스나 聾者와가티
淸雅한 音에高低를 辨別치못하며
입이잇스나 啞者와가티
말할줄모르며
神經이잇스나 痲痺된것가티
喜怒哀樂에 한가지
눈길줄모르는 커야말로
길거리에서 한푼줍시오하며
살기爲해 부르지지는
乞食者보다도 아조도한
低能兒입니다
詩人兄님!
당신네에世上은 꿈으로써듯하더이다
사철 陽春佳節이더야다
興에못이기는 花鳥들은 엇개를겨누고
고흔입술을맛신납신하며
幸福스러운 世上을노래하며
쎄를지어 나러단니는 蝴蝶들은
自然에 舞踏를아뢰난
享樂의樂園속에서
無限한藝術美에늣기는
詩人兄님아!
不幸한 이아오난 이몸로
永永버리려하요

一九二四、一一、三夜

애달분가슴을 태이든날

同人

世上사람은 다들
나를가르쳐 愚者라
嘲笑하며 손가락질하며
排斥한다해도
나난조곰도反抗도 섬념도업섯쓰며
무서움도 두려움도 업섯쓰며
으지가지 업시된可憐한
身世를生覺하고
애달푼 눈물을
쎄내인일도업것만은
오ㅡ 任아
나난 너에게한번
도업난冷笑라 冷笑하며 七바ㅡ를바들때
나ㄴ無識한 너와싸호고도십혓스며
罪惡의구렁어로 드러갈려하는
可憐한 너를보고
성도내엿섯다
그러구 이와가티
冷精한 惡毒한世上에서
무어슬바라고 사나할때
두려웁고 무서운마음은
이내 몸을떨녀주엇다
그러고갈곳업난
不幸한이내身勢를 生覺하고
限업난悔恨에눈물을흘녓섯다
오 님아 너도
한사람이 良心이잇스면
참同情에 뜨거운 눈물이잇스면
참사랑의 붉은心臟이잇다하면
애달피도 사러져가난 이내
마음을
살펴주려만은!
同情해주려만은!
사랑해해주려만은!
오! 님아 요다지도
이내쓰린心臟을
痲痺케 하려느냐

一九二四、一一、五、病室에서

科學消息

世界의六大土木工事

一、스에스運河, 『스코틀랜드』 『꽈ㅡ스』河口의大鐵橋(스코틀랜드) 아ㅡ수안의提堰(埃及의나일河畔에잇는最南都市)파나마運河, 루스벨트提堰(米國아리소나州), 센트로ㅡ렌스河의케베크橋가世界의六大土木工事라한다

二哩前의냄새맛는動物

動物中에는人間처름냄새를잘맛지못하는것은업다 犬、猫、鼠가튼것은 조곰갓가운곳에서나는냄새는 銳敏하게맛는嗅覺을 가지고잇다 큰動物에도 코기리갓흔것은 想像할수도업을만큼 銳敏한嗅覺을 지니엇다 그中에가장銳敏한것은麋이라日氣가조흔째에는二哩압헤잇는물건의냄새를 넉넉히맛는다한다

大量生産

花王石鹼

品質의純良
學理上實用上優良石鹼으로三十年來推奬使用된光榮에빗치나고

價格의低廉
最新設備의大量生産에依하야廉價의良品으로江湖의信用이確實